


“창의성을 위한 집, 창작을 위한 보급자리, 창작기, 창의력을 위한 세가지 보약,
창작루, 창의성 공장, 창의력의 샘, 창작을 위한 음료수, 창작만을 위해
내가 보낸 한 해의 추억, 창작을 위해 불사른 열두달, 창작을 위해 내가 보낼
열두달에 대한 예감, 팔대산으로부터의 창의적인 예코, 창작을 위한 좁은 문,
창작에 대한 욕구와 끝없는 준비,
창작에 대한 신경질, 욕심, 창의 만세, 창작 만세...”

박모의 개인 작업 노트 1996

1	위험포럼의 시작	008
2	모듬	020
3	위험포럼1	028
4	자발적 워크숍	034
5	위험포럼2 '공동창작이란?'	070
6	위험포럼3 '창작의 자유'	080
7	교신이 끊겨도 여행은 계속되리	092
8	장면들	104



1
위험포럼의
시작

기획노트

장애는 발전을 위한 위험을 추구하는데 취약하다. 장애가 가진 사회적 속성이 불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함몰되고 온정주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러한 장애의 함몰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장애 스스로가 위험을 자처하고 추구하는데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예술은 위험 없이 발전하기 어렵다. 위험 포럼은 경계를 찾기 위한 운동이다. 위험포럼은 급진적 위험을 추구한다.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의 깊이와 양은 절대적으로 달라진다. 실험적 시도의 시작은 바로 위험이다. 장애를 둘러싼 윤리-대상화, 귀속화 등-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 장애가 위험을 자처함으로써 장애예술에 대한 미학과 비평의 범주를 확보한다.

위험 포럼은 세 가지의 위험을 둔다.

1. 나의 위험

“나”에게 있어서 위험은 무엇일까. 작가들이 작업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방향성이 사회로 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내면으로 몰입하면서 방법론을 찾을 수 있도록 작업에서의 위험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2. 위험한 시도

곧바로게 나아가는 것보다 흔들거리며 혹은 굴곡진 길이 더 빠르게 목표 지점에 도착한다. 등속도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의 차이. 이전까지는 공동창작의 등가속도운동을 가능하게 하려면 전략적으로 모험을 매칭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기획자가 생각한 부딪힘이나 상생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판단이지만, 사실 기획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 미학적 기준이나 작업 계발에 대한 방법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새로운 관점의 생산을 방해한다. 우연하게 발견된 가치들로 하여금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위험을 감수한다.

3. 비평의 위험

비장애 중심 미술사에서 벗어나는 신경미학적 비평의 언어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시도를 해야 한다. 작가들의 작업에서 작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찾기도 하고, 장애의 특질이 없는 예술이 갖는 장애예술의 문제는 무엇인지, 장애와 관련된 경험에 대한 개인의 사례가 왜 작업과 연결될 수 있는지 예술사회적인 맥락을 짚기도 할 수 있다. 또 제도에 관한 이야기나 정책적인 주제를 이룰 수도 있다. 해당 회에 할당된 주제를 중심으로 현실에서 지체된 비평의 발전을 도모하자.

입주작가

1.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 작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창작워크숍
2. 작가별로 창작주기나 예술에 관한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하나로 통일하기 어려움
3. 개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입주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함
→ 작가가 생각하는 '작가별 창작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점, 지원에 대한 방향성, 장애예술이라는 정책적 범주에서 활동하다 보면 느끼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4. 장애-비장애 예술-비예술의 경계를 읽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것이라고 여겨짐

동료작가

1.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서울무용센터, 신당창작아카데미, 연희문학창작촌에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작가 찾기
2. 기획자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입주작가의 개별 대화와 끝나면 기획자가 세부사업계획에 맞추어 동료작가 섭외
3. 입주작가-동료작가 매칭 이후 지속적인 공동 작업 활동 개시
4. 입주작가-동료작가는 서로를 탐색하고 정해진 시간을 함께 보내며 네트워크 유지



김진주

1994년부터 구축화가로 활동해 왔다. 사물의 본질과 근원에서 비롯되는 현상을 펜 드로잉으로 그린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가며, 다양한 기법을 시도하여 속도와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라움콘 Q레이터, 송지은

아티스트 듀오 라움콘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로 장애를 갖게 된 문화예술 기획자 Q레이터와, 작가 송지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과 다른 몸으로 경험하는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창작물을 생산한다.



박유석

미디어 아트 작가. 영상을 비롯한 매체로 색의 환영을 만들어 낸다. 어렸을 적 눈을 감아도 어른거렸던 빛의 잔상을 모티브로 빛과 감정의 변화를 스크린에 재현해내고 있다.



송상원

자연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관찰하고 상상력을 더해 표현한다. 사회와 자연에 대한 문제의식을 직관적이고 강렬한 이미지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유다영

사진, 글, 점자 등 다매체를 평면에 옮겨 놓는 작업을 한다. 사진으로 일상의 한 순간을 포착하고 그때의 감정을 글로 함께 기록하고 있다.

신당창작아카데미 입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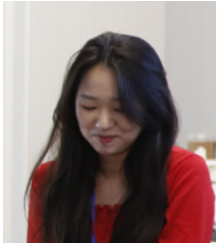
니키노 노은경

스테인드글라스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공예 작가. 프라하에서 문화 재규 건축들의 스테인드글라스 복원을 담당했다. 현재는 한국에서 공예, 조형 등 다양한 분야에 빛과 색을 더하고 있다.



안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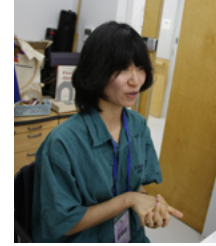
작가는 유기적 생동감, 창조와 생성을 주관하는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섬유 조형의 확장적 가변성을 제시하고 있다. 섬유 조형 작업을 구현하기 위해 소재와 기법의 융합을 통한 다각적인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다.



이현화

테피스트리, 자수 등 섬유 예술을 기반으로 인간 내면을 탐구한다. 전통적 테피스트리의 고블랭지를 활용하여, 마치 회화처럼 보이게 직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법으로 썼다 지웠다 하는 행위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연희문학창작촌 입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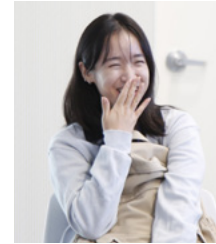
김해솔

시인.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다고 말하는 일을 좋아한다. 현재 국어국문 문예창작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2023년 2월 콜투라 신인상 시 부문에 당선되어 활동 중이다.



신영은

극작가이자 연출가. 연극을 만들어 내는 일에 열중하다 글까지 쓰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오는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다. 202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으며 다양한 무대에 극을 올렸다.



이주현

소설가. 감당할 수 없는데 막을 수도 없는 일들을 마주하고 글을 쓴다. 이미지를 배치하고 다듬는 과정을 즐긴다.



임미정

소설가. 2021 문학사상에서 <호두> 로 등단하여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생활 중이고, 목소리가 없는 이들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주희

퍼포머이자 안무가. 신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스스로의 신체를 재료 삼아 작업하며, 몸이 직관적으로 시도하는 상태에 주목한다.



아하무브먼트 하지혜

무용가이자 안무가. 깨달음의 순간인 아하 모멘트(Aha moment)에 착안하여 '공감'을 키워드로 잊기 쉬운 일상을 재조명하고 익숙한 일상을 해체하여 유쾌하게 재해석하는 아하무브먼트의 대표이다.



김민이

회화를 비롯하여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한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인간의 내면과 관계들을 파헤쳐 왔다. 다양한 주체들이 만들어 내는 아이러니에 관심이 많다.



서찬석

회화와 드로잉 작업을 한다. 풍부한 표현으로 텍스트와 형상으로 구성된 삶의 단상을 그려내며, 예술을 통해 거창한 해결책보다는 불안과의 솔직한 조우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나래

회화, 영상, 설치 등 다매체를 이용하여 정상성, 다양한 가치, 사람들 사이의 기준이 정해지는 순간들을 목격하고 작업으로 풀어낸다. 프랑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지량

개인과 시스템 사이의 미디어를 활용한 다매체로 작업한다. 동시대 사회 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커뮤니티 프로젝트와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풀어내 왔다.



최황

미술을 전공했다.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며 클라이밍을 한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도전적으로 정의하며, 약속과 금기에 흥미를 갖고 질문을 던져 왔다.

매개자들



이지혜

작가와 소규모 전시공간을 사랑하는 기획자이다. 2010년 플레이스막 큐레이터로 활동을 시작해 다양한 작가들을 개인전을 기획해 왔다. 2016년부터 신경다양성 작가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예술가 지원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배우고 있다. 현재 문화매개실천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아

문화매개를 공부하고 여러 장 사이를 오가는 독립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문화매개실천연구소에서 장애예술을 연구하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 콜렉티브 아인투아인 AYINTO AYIN에서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김준기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에서 독립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문화매개실천연구소의 직원으로 예술 장르 간 매개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예술 작업에 대해 연구하고, 예술가 간의 매개를 통한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가영

예술과 사회, 문화매개를 공부하고 있다. 문화매개자의 역할과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이론과 실천 사이를 오가며 배우고 있다. 문화매개실천연구소의 직원이자 사회참여적음악가네트워크(SEM네트워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모듬

모듬

모듬 구성

김진주
신영은
김민이
김재아



라움콘
김혜솔
주희
최황
이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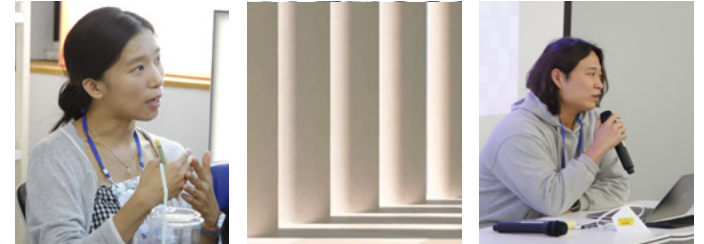
박유석
안은선
아하무브먼트
차지량
김준기



송상원
이주현
이현화
서찬석
김준기



유다영
임미정
니키노
이나래
지가영



모듬

위험포럼의 작가들은 강제로 동료를 얻었다. 동료와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위험포럼은 각 모듬이 자발적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무엇이든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설정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는 자유로운 논의로 좁혀진다고 믿는다. 가까이 머물거나 멀리 머무르는 것과 상관없이 각자에게 던져진 질문은 그를 따라다니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모듬 구성의 이유

첫 번째로 소개할 모듬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김진주 작가가 속한 모듬이다. 김진주는 구족화가협회 회원으로 발로 펜을 쥐고 천천히 드로잉을 한다. 작가는 주로 식물이나 꽃을 그리고 짧은 문구를 드로잉과 함께 남긴다. 드로잉마다 작가의 시간과 수고가 느껴져 질문 하나를 던졌다. “작가님 빠르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숨겨두었던 작업을 꺼내어 보여주었다. 단조로운 색의 드로잉과는 다르게 다양한 색채로 자신의 감정을 상상의 세계로 펼쳐낸 거친 드로잉들이 쏟아졌다. “너무 못 그렸죠?” ‘못 그린다’라는 말은 나를 자극했다. 현실세계에서 부딪혔던 작가의 어려움이 상상의 이야기에 버무려지는 것이 재미있었다. 나는 더 궁금해졌다. “그러면 글도 쓰세요?” 그녀는 내게 몇 개의 문서파일을 보내주었다. 파일 안에는 먼지가 주인공인 시놉시스가 담겨 있었다. 나는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동료들에게 작가의 작업을 공유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작가가 말했다. “그걸 공유하셨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후 작가는 작업을 편안하게 공개하고 다른 작가들과 고민을 나누는 데에 즐거움을 느끼는 듯했다. 나도 당황했지만 지나고 보니 작가에게 감사한 일이다. 완성도 있는 시놉시스를 써보고 싶다는 김진주 작가를 연희문학창작촌의 신영은 극작가, 그림을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는 김민이 작가와 연결했다. 김진주가 신영은을 만나 시놉시스를 더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랐고, 김민이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또 다른 상상력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박유석 작가의 모듬이다. 박유석은 기계적인 빛을 이용해 시각적인 일루전을 만들어낸다. 작가는 그간 실험 음악가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선보여왔다. 기존 작품이 주로 협업이었기 때문에 박유석 작가에게 주도적으로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지 궁금해졌다.

“작가님이 연출한 경험은 없었나요?” 그는 십여 년 전 영상을 보여주었다. 거대한 천이 무대 전체를 감싸고 무용수 두 명이 천을 뚫고 나와 움직이며

빛과 어우러지는 공연이었다. 그가 보여준 영상 속 공연은 작은 규모가 아니었고 작품의 내용을 보고 작가의 정서나 생각을 느낄 수 있었다. 작가는 안무가와와의 작업을 바랐고, 나는 특정한 물리적 형태의 결과물을 상상했다. 하나의 박자를 분절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낼 때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는 아하무브먼트의 하지혜 안무가와 섬유에 성실하게 패턴을 새겨 넝쿨이 증식하는 듯한 작품을 보여주는 안은선 작가를 빛으로 만들어 내는 생명, 숨, 제한된 공간, 움직임 등을 만들어내는 박유석 작가와 연결했다. 작가의 주요한 매체인 빛과 색채 그리고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는 차지량 작가와도 충분히 공감대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기획자가 가진 가느다란 연결고리로 만나게 된 작가들은 편함과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서로의 감각에 집중했다. 다른 장르의 창작자들과 작업 방법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면서는 자신이 다루지 않는 장르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확인하기도 했다. 강력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하지혜 안무가는 ‘썬더볼트’라는 모듬명을 제안했고 구성원 모두 동의했다.

송상원 작가가 속해 있는 모듬은 ‘곤란포럼’이다. 대답하기 곤란할 때 말을 얼버무리거나 ‘이거 참, 곤란하네요’라고 말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지어진 모듬명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실수나 시도를 해보자는 ‘위험포럼’의 취지는 작가에게 곤란하게 여겨졌다. 송상원 작가는 몇 년 전 한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서찬석 작가를 처음 만났다. 워크숍에 함께 참여했던 동료들 지속해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작가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 보였다. 이들은 실로 텍스트를 꿰매며 수행적 작업을 하는 이현화 작가, 사람을 관찰하고 글 쓰는 걸 즐기는 이주현 작가와 함께 모듬을 이루었다. 서로의 작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송상원 작가는 거침없이 감상평을 내뱉었다. 마감을 하지 못한 작가에게는 내용과 관계없이 최하점을 주었다. 다른 이의 작품에 대해선 대체로 좋지 않게 평했지만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작가들은 송상원 작가의 솔직함에 놀랐다. 정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뿌리가 썩은 장미 그림을 보여주며 “장미가 예쁘지요? 하지만 뿌리는 어둡네요. 아, 이게 풍자 작품을 해버렸네요. 이제 보니, 이 대목에서 딱 걸렸지만.” 하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작업에 대한 권태나 한계를 느낀은 작가들은 몇 주간 함께 주제를 정하고 새로운 작업을 하며 송상원 작가의 거침없는 비평을 들었다. 송상원 작가 또한 항상 평가받는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입장에 놓이니 형식적인 말들을 반복할 뿐이었다. 창작에 있어 비평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작가들은 무의미한 비평을 관두고 하고 싶었던 일을 찾고 그것을 함께하기로 했다. 케밥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전시를 보러 미술관 나들이를 가기도 하면서 말이다.

유다영 작가는 앞으로 전개할 작업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나는 해외 진출을 꿈꾸는 작가에게 이미 국제적 경험이 많은 니키노, 이나래, 임미정 작가와의 만남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니키노 작가는 프라하에서 전통적인 스테인드글라스 작업을 수학했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후 지역 상황에 맞추어 아크릴로 대체해 작업을 한다. 이나래 작가는 프랑스에서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 장애지원센터에 있는 작가들과 활동한다. 임미정 작가는 프랑스에 거주하며 글을 쓰는데 작가들과 교류하고 싶어 연희문학창작촌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했다. 여성만으로 모두가 구성되다 보니 솔직하고 일상적인 대화가 보다 쉽게 오간다. 이들은 학업, 연애, 결혼, 이주, 육아 등 삶의 흐름 속에서 경험했던 것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온 궤적을 교차시켜본다. '위험포럼'은 시작부터 '장애'라는 단어를 전면에서 작동시켰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작가와 협업해보고자 하는 작가들을 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작가들은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장애'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숨어 있을 수도 있는 장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편한 시간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안정된 구분을 위한 위험한 구분짓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장애가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국내에 있는 사람과 해외에 있는 사람이 구분되는 현상들이 만들어졌다. 반면 구분지어진 이는 자신에 대한 표면적인 구분짓기에 대해 반문하기도 했다. 긴 시간 다른 문화권을 오가면서 만들어진 이방인의 몸과 그 몸에 적체된 제어 불가능했던 삶의 변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장애로 규정하고 싶게 만들기도 했다. 작가들이 함께하는 과정은 '사회적인 키워드'로 정의되는 단어가 실은 얼마나 단면적인지 체감하는 과정이라 하고 싶다. 이 시간이 공동창작과 어떻게 연결될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라움콘 모듬이다. 라움콘은 양치질이라는 말이다. 몇 년 전 편측 마비가 생긴 Q레이터의 응얼거림으로 탄생한 송지는 커플의 명칭이기도 하다. 영상을 만들고 조각을 하는 최황, 시를 쓰고 퍼포먼스도 하는 김해솔, 몸을 분절해 움직임 만들어내는 주희가 함께 모듬이 되었다. 병원에서 생활하던 당시 Q레이터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금을 신청했다. 5명의 편측마비 환자들이 줌비인 이야기였다. 마지막 면접에서 심사위원은 "이걸 다른 장애인이 보면 어떻겠어요?"라고 질문했고, 작가는 상관없다고 답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Q레이터는 아쉬웠던 마음을 동료들에게 털어냈다. 동료들은 그의 줌비 이야기에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기로 했다. 구성원들은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대상화해보라고 부추기는 Q레이터가 낯설고 웃기기도 했다. '내가 왼쪽이 마비니까 오른쪽이 마비인 장애인을 섭외하면 완벽하겠다', '입원실 동기들을 불러다가 줌비 역할을 시키면 정말 그럴싸할 거야'라는 등의 말은 장애라는 단어의 무게를 덜고


그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만들어냈다. 모듬을 함께 이루는 작가들은 '장애인 줌비는 어떻게 걸을까? 빨리 걸을까, 천천히 걸을까?'라는 질문에 천천히 걸으면 줌비가 아닌 이유를 대기도 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줌비 바이러스가 퍼진다면 어떻게 될지 현재 한국 사회를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했다. 작가들은 좀 더 본격적으로 공동창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구성원별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한다. 서울무용센터에서 열렸던 주희의 안무 워크숍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각자의 걸음걸이와 몸을 쓰는 서로의 방식을 보며 웃기도 하고 동료의 몸에서 창작의 단서를 발견하기도 했다.

깨져버린 위험포럼의 바람

공동창작워크숍을 포럼으로 기획한 이유는 공동창작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통상적인 공동창작은 공동에 포함되는 개인이 각자의 어려움을 수반하지 않고, 가능한 선에서 마감해버리는 어떤 목적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시간과 예산에 따라 주요한 물음이 없어지거나, 좋은 게 좋은 선에서 마무리되거나, 만든 즉시 잊혀져 버릴 물질을 생산한다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이유는 없었다.

축의 부딪힘. 팽팡 소리를 내며 두 진자가 부딪힐 때 더 큰 자유가 뿔어져 나오리라 생각했다. 창작의 자유는 축의 균열로부터 일어나고 공동창작워크숍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각 축이 진화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작가들의 세계관 그러니까 축의 충돌이 공동창작을 통해 일어나기보다 작가들에게는 축을 찾는 과정의 선행이 필요했다. 작가들은 '나의 축은 무엇인가'와 같은 근원적 질문에 직면했다.

창작을 위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수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매개자는 사업으로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개별의 존재를, 그 존재들의 흠여지는 시간을, 교차하지 못하는 시간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라는 고민으로 바뀌어버렸다.



3
위험포럼1

위협포럼1

위협포럼은 위협을 감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내외부의 예술가가 모여 함께 고민한다. 내 몸에 체화된 움직임, 실례가 될까 묻지 못했던 질문들, 타인에게 충격이지만 나에게서는 모험이 될 수 있는 시도,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것에 관해 '위협 원칙'을 세워 열린 상태에서 이야기 나눈다. 위협포럼은 각 예술가 매칭그룹의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는 '포럼'과 창작을 위한 '워크숍'으로 나뉜다. 포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3회로 구성되고, 워크숍은 8월부터 11월까지 매칭그룹이 자발적으로 운영한다.

'공동창작'의 가치는 서로 질문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그 의미를 둔다. 참여자는 창작 과정에서 위협을 감수한 인상적인 단상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과정을 함께한 매개자가 정리하여 웹진에 공유한다.

위협원칙

1. 안 해 본 방법을 선택하기
2. 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 보기
3. 대답하기 어려우면 중얼거리기
4. 숨겨둔 것 꺼내기
5. 더 낮설고, 더 불안한 것 즐기기
6. 작업에 대해 비판적 태도 유지하기

구성원의 역할

호칭에 관한 정리

작가: 주도자 → 작가

서울장애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동료작가: 주도자 → 동료작가

서울무용센터, 신당창작아카데미, 연희창작문학촌 입주작가

동행작가: 협력자 → 프로바이더

위협포럼 모듈 구성을 위하여 섭외된 작가

문화매개 연구자: 조력자 → 매개자

위협포럼 각 모듈에서 작가를 지원하고 관찰하는 역할

→ 모듈

작가, 동료작가, 프로바이더, 매개자 구성체

창작자 역할

작가

못해 본 것, 금지된 것, 타인에게 충격적이지만 본인에겐 모험, 궁금한 것

동료작가

이기적, 비판적, 대상화

프로바이더

도와주는, 질문하는, 방해하는, 해결하는, 반대로 생각하는, 문제를 짚어내는

매개자

다음을 위한 질문, 의미 찾기, 가치 찾기, 고무적인 부분, 학술적 고민

지원자 역할

매개자

지원하기, 관찰하기, 정리하기, 원활하게, 일정관리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담당자

행정 조력



4

자발적 워크숍

*모둠 김진주, 김민이, 신영은 매개 김재아

첫 번째 위험포럼, 첫 만남에서 세 명의 작가는 처음 만나 서로를 소개하고
알아가며,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살피는 과정을 겪었다. 구축화가로
활동하는 김진주와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신영은, 설치 및 회화 작품을 전개하는
김민이는 활동하는 분야도 방법도 다른 창작자였다.

“지금껏 경험해 오고 작업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시도든,
해보고 싶었던 것 혹은 해볼까 생각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무엇을 시도해 보고 싶은지 찾아보고 그것을
공유하여 ‘다음’을 나아가보기로 했습니다.”

작가들은 자신이 이 모둠에서 공동창작을 하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다. 프로바이더인 김민이는 동료 창작자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지는
스스로의 역할을 점검했다.

“방해하면서 돕고, 질문하면서 해결하고, 문제를 짚어내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대칭적 수행자라니.”

두 번째 모임에서 작가들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해볼 수 있을지 함께 궁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안 해본 방법을 선택’하고, ‘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 보기’로
한 위험포럼의 원칙이 개입했다. 보다 위험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기도 했다.

“오늘은 꾸물꾸물 무엇(?)인가 시작해볼까 하는 의지도 함께 하기로
한다. 우선 위험포럼의 취지를 생각한다. 익숙하고 일상적이고
편안하고 숙련된 것들에서 멀어지기. 이번 기회를 빌려 자신을
새로운 곳으로 끌어내어 낯선 경험 혹은 불편, 위험 등등의 우리가
뇌가 ‘도망쳐’ 라고 외치는 환경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제공할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항상?.., 아직은(?) 셋 중에 내가 제일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위험 원칙을 되새기며 익숙하지 않은 서로의 도구를 써보기로 했다. 극작가는
그림을 그리고, 화가는 극을 써 보는 것이었다. 작가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발로
그림을 그려보고, 동일한 키워드를 가지고 각자 희곡을 써 오기로 했다. 세 명의
작가들이 하나씩 고른 키워드는 코딱지, 시겟바늘, 신발이었다. 작가들은 창작의
방법을 자유롭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예술가, 창작의 전문가로서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버려야 한다고 느꼈다.

“우리는 해보기로 한다. 모두 발로 그림 그리기. 낯선 세계로, 낯선
몸으로. 우리는 해보기로 한다. 글로, 극작으로 이야기 걸어보기.
코딱지와 시겟바늘과 신발. 우리는 서로의 도구를 다양하게 써보고
매번 새로운 여행, 새로운 걸음을 걸어보기로 한다. 가볍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진주. 그녀가 구상한 세 편의 이야기를
들었고 특히 ‘먼지의 일대기’를 구상한 이야기에 모두가 큰 흥미를
느꼈다. 챗GPT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없을까.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동화책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비전문’의 위험을 해보고 싶다는 영은. 지난 시간 진주가 ‘글써를
그린다’라는 말이 인상깊었다. 그렇다면 ‘그림을 쓴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렇게 각자의 ‘전문성’을 바꾸는 것을 고민했다.
영은은 생각을 했으나 경험도 없고 방법도 모르기에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그냥 해보면 어떨까 바라고 있다.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퍼포먼스도 촬영하고.”

김진주의 작업대에서
그림을 그리는 신영은의 발



“모든 예술은 결국 타인의 ‘평가’를 맞이한다. 그것이 그림이든 글이든 연극이든 동일하다. 그래서 종종 이를 염려하고 두려운 나머지 조금 더 나 스스로가 익숙한,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하는 방식들을 채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내 전문이 아니니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미리 무언가를 피하거나 제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전문’이란 얼마나 위협하고 자유로운가.”

그다음 만남에서 김민이, 신영은은 김진주가 신체를 사용하는 방식을 쫓아 발로 그림을 그리는 시도를 해 보았다. 작업을 하는 행위의 운동성과 몸에 집중하며, 대화는 사회에서 규정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불편함으로도 흘러갔다.

“선은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곡선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된다.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져도 제대로 그릴 수가 없다. 발가락의 힘은 자꾸 빠지고, 높이 때문에 다리를 들고 작업을 하니 허벅지 근육이 금방 아프다. 종아리 근육도 아프다.”

“예술청에 관한 얘기가 나와 내가 그쪽으로 화장실을 다니게 된 사연을 말하게 됐는데 그러다 장애인(공용) 화장실에 대한 에피소드와 겪었던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멤버들 너무 재밌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한편 작가들은 각자 써 온 회곡을 함께 낭독하였는데, 같은 단어 세 개가 들어간 극본은 놀랍게도 서로 매우 다른 내용이였다.

“각자의 너무도 다른 회곡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란다. 이토록 사람은 다르고 다양하니 너무 멋진 일이다.”

네 번째 만남으로 접어들고, 작가들은 이전에 사용해 본 적 없는 창작 방법인 그림 그리기와 회곡 쓰기를 시도해 보면서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영은쌤은 그림에 재능과 관심이 꽤 깊으신 것 같아 보였다. 나 또한 글-대본-쓰는 법은 모르지만, 대본이란 것을 짚막하게 써보니 그림그리기와는 다르게 재미있고 계속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다음번엔 사용해 본 적 없는 신체로 서로 크로키를 해보기로 했다. 물론 대본(키워드-머리카락, 캐나다, 사과, 사진) 쓰기도!”

‘낮설다’는 것은 언제나 조금은 힘이 더 들지만, 그래도 나름의 ‘만족’을 주는 것 같다. (...) 이렇게 모두가 함께 귀 기울여주고 의견을 내고 뭐든 해보아도 된다고 하는 환경에 있다 보니 뭐든 겁이 많은 나도 용기가 생기는 모양이다. ‘장애인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고 그것을 어떤 결과물... ‘결과물’이란 말보다는 ‘과정물’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것을 결국 정말로 변화하는 ‘결과’를 꿈꾸며 시작하는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 든든한 동지들이 있으니,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도 가져봐야겠다고 혼자 결심한다.”

한편 작가들은 비단 작업이나 공동창작에 관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수용적인 대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지난주 모두가 관심이 있었던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대화가 다시 펼쳐졌고, 작가들은 이 주제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지 다시 논의해 보기도 느슨한 약속을 했다.



“남은 시간은 장애인 화장실 시설과 다양한 레퍼런스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완성되었다. 기계들, 화장실 자동화 키오스크, 비인간화, 장애인 시설의 한계 등등에 대한 것이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 환경과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각자의 삶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느라 인간 삶 보편의 것에 탄지를 걸거나 그 탄지를 꾸준히 어떠한 운동성으로 바꾸는 것은 실로 힘든 일이다.”

다섯 번째 만남, 세 명의 작가와 한 명의 매개자는 종이를 많이 깔고 다양한 신체를 사용하여 서로를 크로키 해보기로 했다.

“장애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가장 넓게 보듬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문제는 그런 건 없는 듯합니다. 낯설고 익숙지 않고 어색하고, 그런 태도를 신경 쓸수록 경직됩니다. 여튼 저희는 익숙지 않은 신체를 이용해 크로키를 감행해 보기로 합니다.”

“다른 신체를 이용해서 짧은 시간 그림 그리기를 하니, 엄청난 집중력과 즐거움이 함께 찾아온다. 그리는 동안을 다른 생각 없이 집중과 노력을 해야 하고 다 그리고 나서 보면 뭔가 그 영성하고 영망한 선과 면이 뭔가 그럴싸한 느낌을 주는 걸 발견하곤 한다. 그러니 감탄하고 웃게 된다. 게다가 모두가 함께하니 더 즐겁다. 얼마나 우리의 신체가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나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한편 같은 단어를 가지고 회화를 써 보는 실험은 점차 각자의 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각자만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다른 이의 손에서 탄생하는 걸 발견했다. 그래서 겨우 3번째지만 뭔가 읽어보면 누구의 작품이라고 연상할 수 있을 거 같은 어떤 특색들이 드러나는 거 같았다.”

작가들은 여섯 번의 만남, 네 번에 걸친 회곡 쓰기로 모인 작품을 낭독극의 형식으로 영상에 담기로 하고 기획을 시작했다. 각 작가가 자기 작품 중 하나를 고르고, 다른 작가들에게 배역을 정해준다. 작가들은 회곡에서 쓴 사람의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키워드들을 한 명에 하나씩 골라서 회곡을 쓰기 시작한 지, 네 번째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의 감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이동이 이제 어느새 패턴처럼 작동되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각자의 습관 혹은 패턴, 취향 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를 위한 거대한 벽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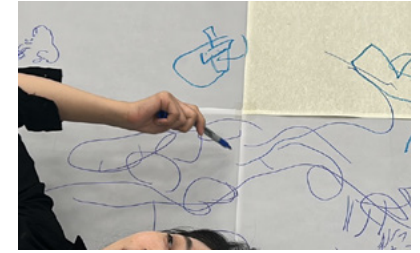
한 작가는 글씨를 크게 읽는다는 부담감 때문에 낭독을 맡기를 주저하였고, 다른 작가들은 낭독을 굳이 강요하지 않으면서 낭독극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낭독극’에 있어서는 진주가 걱정이 많았다. 글씨를 읽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진주의 이야기를 듣고 민이는 싫고 불편하면 그걸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내자고 했고, 자막이 대신하거나, 다른 이가 대신 읽어주거나, 기계음이 대신 읽어주거나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낭독극에는 함께 하지만, 하기 불편한 ‘낭독’은 하지 않는 방법을 논의했다.”

다음 만남에서 작가들은 공간을 빌려 낭독하는 과정을 연극처럼 영상에 담았다.

“예술청 아고라실을 빌려 그곳에서 그동안 써 놓은 대본을 골라 낭독회를 열었다. 우리는 모두 검은 의상을 착용하고 공연하듯이 대본을 낭독했다. 그리고 이어서 바닥에, 벽에 커다란 종이를 여러 장을 퍼서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 익숙하지 않은 신체 기관으로 크로키와

누워서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는 김민이



드로잉을 했다. 나는 손으로 그렸다. 비교적 잘 나왔다.
우리는 2시 30분부터 준비해 대본 4개 낭독, 드로잉을 했을 뿐인데
끝나고 나니 7시가 넘었다. 다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에 놀랐다.”

공간에 큰 종이를 여러 장 깔아두고 접힌 팔 사이, 발, 입 등 다양한 신체로 다 함께
동시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안 보고 그리는 것과 보고 그리는 것이 매우 달랐다. 안 보고 머릿속
으로만 생각하며 그리니 매우 대범할 수 있었고 별걱정이 없었다.
처음에 시작만 조금 망설여졌을 뿐. 근데 역시 보며 그리니 스스로
잘되고 있는지를 자꾸 판단하는 기분이었다. 그리니 자꾸만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서 점점 더 조심해지고 조심스러워졌다.
나 역시도 평가를 할 때 이미 나를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좀 해봐도 될 텐데 말이다.”

영상을 찍은 다음 만남, 작가들은 영상을 촬영했던 소회를 나누면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여태껏 함께해 온 작업을 영상의 형태로 남긴 이후,
다음 작업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상의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오늘은 이전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던 ‘먼지의 모험’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진주님이 글을 쓰고 우리가 함께 보며 좀 더 새로운
표현으로 글을 다듬고, 주인공 ‘먼지’를 진주님이 그리면 그 주변
인물이나 배경은 영은님이 그리는 것이 어떨지,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2023년 위험포럼의 끝을 앞두고 작가들은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회고하며, 세 명의 작가는 모든 모둠이 모여 그간의 경험을 나눌 마지막 행사
‘위험포럼 3’을 준비했다. 기존의 공동창작 규칙처럼 키워드를 정해서 회곡을 쓰되,
각자 위험포럼 그 자체를 주제 삼아 써오기로 하였다.

“머칠 전 배우를 하는 친구와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작업을 안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스스로 자책을 빠져드는가를 이야기했었는데 올해는
나에게는 ‘위험포럼’을 만난 것이 꽤 든든한 힘이 되었다. 나 역시도
작업을 안 하는시간에 종종 괴로움에 빠지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아주 작고 이상한 일일지 모르나 뭔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련의 작업을 한다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고
나 스스로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지난 시간의 키워드 ‘위험포럼 발표장/ 이지혜/ 빨대/ 기자/ 의자’로
써온 회곡을 서로 발표하며 공유했다. 서로 매우 각자 다운 느낌을 가진,
너무도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왔다. 그것들을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정해졌다.”

‘위험포럼3’에서 모듬은 마지막으로 쓴 회곡을 낭독하는 것으로 발표를 대신하기로
했다. 각자가 이 시간과 위험포럼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듬으로서
어떠한 창작 과정을 함께 하였는지 무엇보다 네 편의 회곡이 대신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위험’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자유’인 줄 알았는데 너무도 어렵고
버거웠고, 길을 알 수 없었지만 함께 하는 이들이 있으니 어느덧 ‘자유’
에 가까운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싶다. 나 말고도 다른 어려운
키워드였다고 하셨는데 이야기는 재밌었다.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막막하기만 한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건, 결국 그 속에서 빛남을
발견해 주는 이들이 있어서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싶다.
왜냐면 모두의 이야기가 나에게 감탄이 날 만큼 정말 재밌고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모듬 송상원, 서찬석, 이현화, 이주현 매개 김준기

위험포럼 첫 만남.

네 명의 작가들은 작업 방식도 장에 여부도 모두 다르다. 송상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연신 ‘곤란하다’고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었다. 작가들은 여기에 착안하여 팀 이름을 ‘곤란포럼’으로 짓고,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으로 자신들을 밀어 넣어 보기로 했다.

“그룹별 만남에서 뜻밖의 질문(예술과 관련 없는)을 하셨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앞으로는 곤란한 질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동시대 작가로서 비평의 연결고리 안에 함께 들어가 보고, 공개적으로 작품에 대한 평가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때 비평의 주체는 송상원, 비평을 받는 대상은 다른 작가들의 작업이 되었다. 이 비평의 과정은 사회적으로 설정된 무례와 곤란을 오가며 벌어질 것이었다.

“아! 이거다. 이번 위험 포럼 우리 팀의 작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우리는 보통 다른 작가의 작품을 술자리 1:1도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노출하고 자신의 감상평을 하기가 쉽지 않다. ‘실례’ ‘무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상원 작가에게는 그게 없다. 그가 ‘실례’ ‘무례’ 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작가가 작품설명을 하고 또 자신이 봤던 다른 작가의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하는 것이 동시대 작가로서의 연결고리 안에서 당연한 것이다.”

“서찬석 작가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각자의 작업물을 송상원 작가의 시각에서 보고, 그에게 예술을 배워보자는 것이었다. 그동안 다들 하던 대로만 작업을 해 와서, 환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 이현화 작가와 함께 나가려는데 뒤에서 인사하던 송상원 작가가 우리에게 “무너지지 마세요.”라고 했다. 정확히 어떤 뜻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말이 내게 힘이 됐다.”

비평을 받는 작가들에게 송상원으로부터 다음 모임까지 기후 위기를 주제로 작업을 해 오라는 과제가 떨어졌다. 이주현은 그녀의 기존 작업 <멸종>을 퇴고하였고, 서찬석은 글과 북극곰 그림을 그렸으며, 이현화는 키치한 일러스트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했다.

“과제 작업으로는 일상속에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고 있는 일종의 밈들을 찾아다녔다. 특히 대프리카로 불리던 한여름철 대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라던가, 최근에 뉴스에서 접했던 중앙분리대가 녹았던 사진, 신발이 아스팔트의 열기에 녹고 계란후라이를 바닥이나 차 보닛위에서 익히는 등의 자료를 구했다. 이 장면을 일러스트로 그리고 가볍게 소비되는 밈 이미지들이지만 웃픈 현실과 이제는 기후 위기가 우리의 일상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길 바라며 드로잉하였다.”

첫 번째 과제를 마주한 송상원은 5점 만점의 평가 기준을 세우고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별점을 매겼다. 본인만의 명확한 기준을 따랐으나, 가장 큰 평가 척도는 완성도였다.

“그러자 송상원 작가는 날 똑바로 바라본 채 “무엇을 하셨습니까.”라고 했다. 퇴고를 해 오긴 했지만, 미완성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다. 송상원 작가는 처음엔 내게 5점 만점에 5점을 주었다가 미완성이 아니냐는 서찬석 작가의 말에 2.5점을 주었다. 총평은 ‘미.완.성.’”



“총평과 점수의 시간은 그야말로 공포였다. (...) 물론 총평에 써있는 미흡한 부분들 또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재검사를 하라고 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작가들은 각자 작업을 해 오고 비평을 가하거나 받는 것을 넘어, 더욱 단단한 시간을 쌓고자 함께 전시를 보러 가기로 했다. 같은 전시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비평에 두께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했다. 작가들과 매개자는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김범 개인전 <바위가 되는 법>을 관람하기 위해 이태원에 모였다.

관람 경험은 작가들에게 비슷하면서 다른 인상을 남겼다.

“생명을 잃은 사물들”에서는 낡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 문드러져 흙처럼 변해가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버리면 오랜 기간에도 잘 썩지 않는데, 작품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동식물처럼 흙덩이로 변하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비록 작품을 보는 저와 다른 이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 관람이 저에게 차후 작품 제작과 감상문 작성에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포럼에서의 시도는 신선함이나 새로움이 아니다. 예술가의 광기 재탐색이다. 엉뚱함을 만들고 싶고 괴팍함을 드러내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그런 나의 개인적인 갈증을 팀원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조금씩 물어보고는 있다. 마음이 좀 급해져서 조금 더 물어봐야겠다. 일단 나부터 좀 급자.”

다음 모임을 위하여 송상원이 요구한 과제는 소통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과제를 내고, 동일한 주제로 작업을 해 오고, 비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작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기존의 작업 관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했다.

“텍스트의 내용은 AI와의 대화 내용이다.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러나 저러나 현실적인 부분으로 스스로는 아무 결정을 할 수 없었다. 나 말고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결정을 대신 내려줬으면 PVC에 자수를 놓았다. (...) 소통의 문제가 이번 과제의 키워드였는데, 사실 가장 소통하기 어려웠던 건 내 자신과의 소통이었겠다.”

“내가 느낄 땐 그것보다 개별적인 문제(특히 각자 작업에 대한 개별적 고민들)가 이 모임의 진행에 가장 큰 저해 요소 같았다. 이 모임을 통해 각자의 문제에 대한 이전까지와는 다른 돌파구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다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팀원들을 만날 때 즐겁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충동이 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위험 포럼 이전과 달라진 점이기에 때문에 보인 않았지만 아주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같은 주제의 작업과 비평이 반복되는 절차가 정립되면서 어떤 작가들은 필요한 강제성을 갖게 된다고 평가하는 한편, 어떤 작가들은 이 과정이 관습화되고 굳어지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다. 모둠은 비평만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보기로 했다.

“이번 프로젝트로 작가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긴 작은 변화가 있다면 아주 오랜만에 붓을 들었다. 머리로 생각만 해서 절대 이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붓을 들고 무언가를 그려보기 시작하니 그 오랜 고민이 무언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포럼은 작업이다, 혹은 일이다,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위협해지긴 마찬가지다. 작업이 되면 진지하고 개별 주장이 강해지고, 일이 되면 기획의도가 아주 무난하게 협업정도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과감하게 열린 방향성의 포럼은 위협이 아니라 무책임을 부를 수 있다. 전체적인 사업이 위협해진다.”

이름	점수	내용
김준기	0점	작업을 안 했다. (사실 할 필요 없음)
서찬석	3.5점	점이 선이 되고 선들이 꼬이는 느낌이 좋았다. (정작 중요한 텍스트는 읽지 않더라) 4점이었으나 말대꾸 했다가 0.5점 깎임
이주현	0점	작업을 안 했다.
이현희	4점	자수를 공들여 잘 했다. 빨간색에 대한 의미도 좋다.
송상원	0점	1년 전 작업 돌려막기

“비평을 하던 중 더 이상 비평은 소용이 없겠다 싶어 모임의 방향성을 ‘작가란? 예술이란? 작업이란?’ 훨씬 더 원초적이지만 작가들에게 가깝고 어려운 대화를 하기로 했다. (...) 닥치고 작업은 경험도 기술도 핑계도 시간도 책임감도 무게감도 다 이긴다.”

“우리 팀의 경우 ‘곤란 포럼’이라는 모둠명으로 현재까지 진행한 주제별 과제와 크리티크 점수, 과제 작업 중 우리가 느낀 일종의 결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작업이 잘 안되고 어렵다는 등 공통적인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마쳤다.”

다음 모임의 작업은 특별하게 먹었던, 특색 있었던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 작가들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관심이 생긴 것뿐 아니라, 서로의 존재와 언어에도 익숙해지는 중이었다. 마냥 조심스러웠던 태도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다.

“고무적이었던 건 어떤 방식이든 그 시간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움직이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만남과 과제를 통해 얻은 건 조금은 압박 아닌 압박과 스트레스가 있었을지라도 그 데드라인 덕분에 손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했다는 것이 아닐까? 이번 포럼을 통해 나 그리고 우리 모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같은 생각을 주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때론 예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유쾌하게 풀고 각자의 방법으로 ‘나’에 대해 마주하는 시간을 긴밀하게 가진 듯했다.”

“그동안 모임을 하며 네 사람 다 과제를 해 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들 어느 정도 힘이 빠진, 편안한 작업을 해 와서 분위기가 좋았다.”

“이 외에 모둠 구성원들의 작업 또한 전에 제출했던 과제보다 좀 더 솔직해졌다고 생각되는데 이제야 조금씩 우리들의 무언가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느꼈다. 그전에는 과제가 주어졌으니 그 과제에 맞춰 무언가를 그려냈다면 이번에는 각자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석해서 왔다는 느낌이랄까? 과제에서 서로의 성격과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잘 보여서 재미있었다. 오히려 공감도 잘 되고.”

송상원의 정기 비평회로 나아가는 모두의 협업 과정은 장애를 가진 송상원이 비장애 작가들에 비해 중심에 놓였다.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듯 하다. 작업적 전환을 위해 곤란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호작용을 전면에 드러내 보자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비평은 작가들의 작업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 작가들의 작업 태도와 과정에 더 깊이 엮여 있었다.

“송상원 작가의 가장 가혹했던 비평은 미완성과 미실천에서 나왔다. ‘과제를 안 해오셨네요?’ 당사자들은 웃고 넘겼다. 헌데 이 포럼이 아닌 다른 저명한 포럼이나 단체에서 진행되는 과제였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작업들을 쉽게 보고 무책임하게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 송상원이 아닌 한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비평가가 내어준 과제였다면 아무리 바빠도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비평은 작품이 아닌 예술가들의 태도로 확장되었다.”

작가들은 비평이 아닌, 좀 더 힘을 뺀 작업 방식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집중하여 작업으로 풀어냈다. 예를 들면 작업의 권태로움이나 협업 방식의 고민 같은 것이었다. 작가들은 함께 만들어내는 창작물을 연설문을 읽는 웅변, 브이로그 등 다양한 포맷으로 고민했다.

“결국 방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하나의 웅변연설문을 다 같이 써보는 것은 어떨까? 문맥도 단어도 뒤섞인다면 정말 이상하고 찌질한 연설이 나올 것 같다. 위트를 만들어보자. 혹은 이 웅변을 위해 촬영, 편집, 대본, 미술 등 우리가 가진 재능을 골고루 섞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협업이다! (개인적으로 합창도 하고 싶다)”

“지금까지 작업에 대한 태도를 심각하게만 받아들였다면 가볍고 재치 있게 풀어내면서도 그 속내는 마냥 가볍지만은 않게 말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한 편으로 들었다. 작업에 대한 권태로움이 식상하다고 느꼈던 건 항상 심각했기 때문일까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식상하다는 건 모두의 공통점이라는 방증이 된다고도 생각한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겁게 표현해 보고 싶다. 야 너도? 야 나도!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전시라면 꽤 재밌을 것 같다.”

이러한 방식의 전환은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국면을 맞이했다. 작가들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에 동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원이 성인 발달장애인이란 점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특수성이 분명 존재했다. 각자가 정의하는 관계와 친구의 의미도 달랐다. 이들은 각자가 고민하는 관계의 이야기를 ‘레시피’와 ‘지도’ 등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지시하는 글의 유형으로 드러낼 계획을 하고 있었다.

“즉 작업을 위한 작가들의 모임이 고민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야 작업의 방향이 잡혔다. 이론과 개념, 방법론의 작업 방향이 아닌 솔직함, (일부더라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직한 개념이 발견되었다. 아니 애초부터 있었으니 드러났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 발달장애인으로서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말에 서로 사연은 다르겠지만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 즉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작업을 위한 작업이 아닌, 개별의 쥘 내러티브를 통해 공통의 작업, 즉 협업의 이상적인 단계에 접근하게 되었다.”

*모듬 유다영, 임미정, 니키노, 이나래 매개 지가영

어색할 수도 있는 첫 만남에서 작가들은 서로의 공통점을 빠르게 찾아가며, 함께 할 수 있는 주제나 이야기를 모색했다.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현재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는 무엇인지 공유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동'의 창작은 무엇일까? 어떤 형태, 어떤 과정을 통한,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첫 만남부터 이어진 이야기들은 개인들의 작업 주제 혹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유했고 때로는 서로의 다름을 채집하고 던지는 질문들도 있었다. 대화를 하면서 흥미로운 지점들은 각자 작품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담고자 했던 부분, 작품을 하면서 공통으로 경험했던 감정에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었다.”

“오늘 작가님들 처음 만났다. 어떤 분들과 팀이 될지 궁금했는데 여러 공통점을 가진 분들과 한 팀이 된 것 같아 기대된다. 다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궁금하다. 다른 사람이 보면 내 인생도 신기할까? 내가 소설을 쓴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이분들은 사진을, 영상을, 유리를 만졌다는 것이 낯설고 신기하다.”

“현재 개인이 준비하고 있는 작품과 함께 만들어갈 작품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업은 경쟁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즐겁게, 친밀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적으로는 함께 작업하는 동안 서로가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가들은 각자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기도 했고,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만나게 됐다. 각자의 작업과 작품,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대화를 마친 후 정해진 주제는 '내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 누군가는 과거가 여전히 발목을 잡기도 했고, 또 다른 이는 지금-여기, 그리고 변화무쌍한 미래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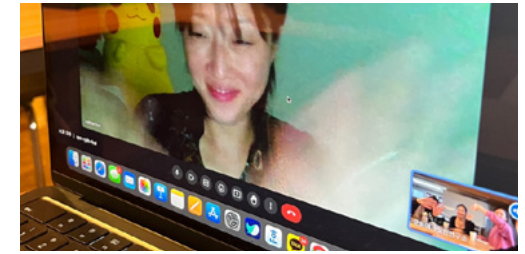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주제 앞에서 자기 삶 속에서의 위험을 마주하고 다뤄보고자 했다.

“은행원들이 모이면 예술 이야기를 하고 예술가들이 모이면 돈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맞다. 우리는 완벽하게 각자 작가의 위치에서 대화를 했고, 예술가의 삶, 어려움과 고난, 슬럼프 등 각자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눈앞에 닥친 금전적 생계 문제, 대자연, 학업에 대한 갈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갈망, 그리고 불구가 되는 공포. 서로 다른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가상적이고 미래적이다. 실체는 없지만 매 순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점이 흥미로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했다. 사실 여러 감정과 느낌 중에 '두려움'은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오픈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치부를 드러내는' 일 같았다.”

“누군가 자신의 문제를 친한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태도에 대해 생각을 했다. 내 고민은 사실 그들의 고민이 될 수 있고, 작업을 현실에서 진행하는 예술가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문제다.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의 힘을 기르는 첫 단추가 된 것 같다.”



각자가 가진 두려움, 위협,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과연 장애는 무엇인가?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정신적 장애, 우리 각자가 가진 장애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다르므로 무엇을 장애로 볼 것이냐는 것이 공동창작 과정에서 계속해서 화두가 되었다.

“장애는 과연 무엇인지?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정신적 장애, 우울은 장애가 아닌가? 두렵다.”

“보이지 않는 장애, 느껴지지 않는 장애, 작가 자신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장애, 타인과의 교류에 지장이 없는 장애, 이동에 무리가 없는 장애, 대화와 소통에 유리한(?) 장애, 본인이 받은 실질적 장애 등급과 타인의 체감이 다른 장애 다양한 장애가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의 주제는 장애와는 거리가 멀다. 그 지점이 우리 팀의 특이점이다.”

공동창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났지만,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했다. 구체적인 방식과 제안이 아니라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대어 진행되는 위협포럼의 진행방식 앞에서 작가는 자신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공동창작에 참여했으며,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에 대해 사유했다.

“나 혹은 내가 속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참여도와 성실 그리고 어떤 일을 함께해야 할 때 내가 속한 그룹에서 개인으로 존재할 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과 추진력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 모임에서 왜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힘들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 이유는 너무 정해진 타임라인에 각자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각자가 안 맞는 걸지도? 내가 그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적극적이지 않았을 수 있다.”

“활동에 너무 자유가 주어져서 틀이나 규칙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자유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일느냐가 추상적이다. 그냥 놀이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놀이에도 규칙이 있다. 우리의 규칙은?”

“모듬 구성원을 보면서 낯선 이었던 사람들의 과거를 알고,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친해지는 과정이 좋다.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나눠 타고, 산책하고, 전시를 보러 가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이 어쩌면 내가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대하던 순간이 아니었다 생각하게 된다.”

공동창작을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작업이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은 한 번도 없으므로 나흘에 걸쳐 자신의 지금까지 해 온,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을 소개해 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모두 익명으로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다른 창작자가 작업 설명을 할 때 자신이 드는 생각과 감정, 질문들을 자유롭게 채팅창에 남기는 과정이었다. 익명의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과 경험이였다.

“창작을 위한 방해꾼으로서, 작가로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던져보았는데 다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같았다. 무례하지 않은 솔직함으로 계속 봐야겠다.”

“대면에서 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어색함, 사회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성격들이 잘 보완되는 이번 익명의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경험했다. 작업 이상으로 그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값진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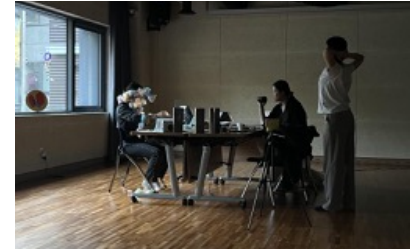
“익명의 채팅으로 서로의 작품을 비평(?)한다고 해서 겁이 났다. 걱정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끝내고 겨드랑이가 축축했던 기억이 난다. 긴장되었다. 무엇보다 내가 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직은 낯설고 어색하다.”

서로의 작업 세계를 공유한 작가들은 모두가 같은 주제, 같은 방법, 같은 공간으로 모이기로 했다. 책상 앞 모니터 앞에서, 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공동의 행위를 해보기로 했다. 앞선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도 하고, 뒷사람을 위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6시간 동안 릴레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다들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왔고, 각자 한 시간 반씩 글을 썼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끼리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피로하기보다는 좋은 시간이었다. 소음과 공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공유하는 것. 학교에서 보내는 방과 후 수업의 향수가 느껴졌다.”

“제목은 공유한 채로 작업을 이어나갔는데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따라 읽으면서 공감했고, 의아했고, 아렸고, 갑자기 웃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다. 이 글이 이대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6시간 동안 진행된
릴레이 퍼포먼스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마무리와 결말,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각이 제각기 다르다. 공동창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만으로 지나온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마주한 자기 자신의 모습, 그걸 같이 따뜻하게 혹은 싸늘하게 지켜보는 구성원들. 구성원 모두 아슬아슬하고, 실로 위험한 시간이었다고 누군가와 마음 맞춰보는 일의 가치를 몸소 체감했다.

“합의라는 말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것 같다.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합의”

“함께한 시간이 쌓인 만큼 갈등도 쌓여가는 것이 느껴진다.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태도와 소비하는 에너지가 다르다. 게다가 우리에게 이 프로젝트는 각자의 작업 이후의 부차적인 활동이어서 모두 온전한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일 것이다. 작업 활동상 어떤 작가는 팀을 이루어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어떤 작가는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무언가를 만들 때 누군가와 함께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의견을 맞춰나가고 일을 진행시켜나가는지 확신이 안 섰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조금씩 이해하는 지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 다행이다.”

“콜라보레이션, 콜렉티브 개념보다는 개개인이 모여 만들어지는 형태이니 모아짜기를 통한 조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이며, 협업이라는 단어보다는 집합에 가깝다. 그리고 보니 우리는 지금까지 모둠 이름이 없다. 여전히 개인들만 존재하고 있기에 우리들을 통칭할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듬 박유석, 하지혜, 안은선, 차지량 매개 김준기

첫 만남이지만, 각자가 이해한 위험포럼의 의미와 취지에 대화하고, 각자 작업 과정에서 갖는 규칙들, 사용하는 공간과 재료, 장르를 소개했다. 각자 다루는 매체는 다르지만, 그 속에서 공통으로 공감하는 키워드를 발견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우리 모듬에서는 자연, 빛, 잔상과 같은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나왔고 더 나아가 자연 속의 개인, 사회, 전체 혹은 일부와 같은 키워드로 확장시켰다.”

“자신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자연의 어떤 기이한, 유기적 형태를 바라볼 때의 감각과 하나 이상의 인간이 같은 호흡 속에 움직일 때의 감각, 개인의 감정들. 각자 다른 매체를 사용해 표현하지만, 공감하는 상태들을 발견하는 대화를 통해서 발견했다. 랜덤하게 흩어진 혹은 의도적으로 흐트러뜨린 퍼즐 이들을 하나씩 주위 모아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작업이 기대된다.”

‘위험’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작가들은 본격적으로 각자의 작업과 삶 혹은 그 중간에서 느끼는 ‘편함과 불편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과정은 구성원이 서로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과 작업에 대한 태도를 선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 나아가 각자의 개별적인 삶의 모습도 나누었다. 예상했던 서로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이 있었고,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자신의 작업과 삶에서 ‘편안함과 불편함’의 경로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을 첫 번째 미션으로 제안했다. 작업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작업 중에 있을 수 있는 방해 요인을 피해 갈 수 있는 유연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사실 나 자신에 대해 스스로는 질문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만,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나의 상황, 나의 생각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숍에 가면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든다. 솔직히 아직은 서로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점점 더 위험포럼스러워질 수 있게 스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시행착오를 겪어봐야겠다.”

“공동 작업이 어떤 결과물, 목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창작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편안함과 불편함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다.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놓음으로써 관계를 쌓는다. 나는 내 이야기를 꺼내었나? 잘 풀어내고 싶다. 잘 풀리는 건 뭘까?”

각자의 일정과 사정으로 만남의 빈도도 잠시 줄어들고, 공백이 늘어나면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고민이 늘었다. 공동창작의 과정에서 각자가 마주하는 장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마주하기도 했다.

“진정 협업이라는 스파크가 생기려면 각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있었나? 말을 듣고 이해를 하면서도 쉽사리 타인의 입장이 되지 못한 건 그만큼 상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일지도 모른다. 사회적 인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번 공동창작워크숍을 진행하며 나도 모르는 나의 협조적이지 않은 낯선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다.”

“각자의 삶을 공유하다 보면 함께 할 무언가도 자연스레 찾아지지 않을까 조금은 안일한 태도가 있었던 듯하다. 지금이라도 넓게 펼쳐졌던 포커스를 점점 좁혀 같이 교집합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서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된 이후에는 각자가 ‘작업’에서 느끼는 편함과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구조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편한’ 일이고, ‘불편한’ 일인지 경로를 추적해 보기로 했다. 작가 모두가 10분 동안 자유롭게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심층적인 지점들을 건드려보았다. 누군가는 작업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신이 작업한 패턴들을 골라서 보여주었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각자의 관점을 듣기도 했다. 풍선을 만지고,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색다른 모습도 발견하고 친밀한 시간을 보냈다.

“마치 동심으로 돌아가는 풍선을 주물주물-천진난만한 표정과 창의적인 생각들을 보여줘서 재미있었다. 대화도 좋지만, 함께 무언가의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어 한층 친해진 것 같아 기쁘고 각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각자의 편함과 불편함에 대한 이해가 쌓여가면서 그게 확장되어서 각자 작업의 최소한의 조건, 작업에서 다루는 최소한의 도구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이 최소 단위의 도구에서 촉발되는 지시어나 최소한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여주고 표현할 수 있는 작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했다.

“하나의 목표로 모여들기 위해 가속도를 올리는 지금, 그동안 시시콜콜 서로에게 자연스레 스며들었던 시간 역시 유의미하게 작동되는 듯하다.”

박유석 작업실에서
워크숍을 진행 중인 썬더볼트



“누군가는 실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라 했고, 또 다른 이는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자 몸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라 했다. 나는 빛을 가지고 노는 사람, 내 마음이 동하는 조건은 빛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그 미세한 변화를 관찰하는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온전히 나의 뜻대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 변화를 통해 내 마음이 다시 동하는 상태, 본질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이유란 생각이 든다.”

참여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흐르며 리듬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특정 순간에 합일점이 발생하여 스파크가 일어날 만한 것들을 떠올리며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작가만이 아닌 ‘삶의 활동’이라 여겨온 것들의 안과 밖을 거쳐 마주했던 장벽을 지나 해방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다. 개별적인 작가들의 고민이 맞닿은 지점은 결국, 해방이었다.

“서로의 이야기가 실제 모임과 안정적 환경에서야 시작된 느낌을 받았고, 협업이라는 조건에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정리했다. 이 포럼과 모든 발생의 주체들이 서로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방식이 축구되는 지점을 떠올리는 시간이다.”

“각자의 자그마한 도전들이 모여 결국 자신의 해방으로 이어지는 순간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방감, 새로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온 키워드. 각자가 느끼는 해방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누군가의 해방감이 나에게 전달되는 지점은 무엇일까? 해방감이 드는 강력한 순간, 그 지점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다.”

공동창작을 하고자 모여, 공동 이전의 나 자신을 직시하게 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방을 고민하게 됐다. 작가들은 공동창작을 위해 모여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서로 해방되고, 해방시키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이 해방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썬더볼트만의 속도와 힘으로 나아가고 있다.

“해방감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각자가 느낀 진정한 해방감이 아니라면 관객에게 그게 전달될 수 없을 거란 생각 역시 공유할 수 있었다. 내가 해방감을 느꼈던 그 시점에 돌아가서 그게 발생한 과정을 되짚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순간 치열한 현실에서 공동창작 워크숍을 하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들이 해방되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함께 예술 영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보면 공감이 가기도 하고, 나를 이해받을 수 있는 안락함이라고 할까?”

“서로에 대한 작업 과정이나 작업물에 대해 대화한 적은 있으나 작업실을 방문하거나 실제 작업을 마주하거나 함께 춤을 춰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방이라는 키워드로 각자의 작업과 해방에 집중했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만남이 되었으면 한다.”

*모듬 라움콘(Q레이터, 송지은), 김해솔, 주희, 최황 매개 이지혜

장애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모듬 구성원이 처음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두드러졌던 것은 서로 다른 작업 방식과 필드에 대한 흥미였다. 기획 및 작업을 수행하는 아티스트 듀오 라움콘, 안무가이자 퍼포머인 주희, 입체와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최황, 시인인 김해솔은 서로를 각 장르에서 활약하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협업을 구상하였다. 전문성을 녹여내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는 방식으로의 공동 창작의 포문을 열었다.

“각 구성원이 시각,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장르적 전문성을 충분히 녹여내는 역할을 지향하기로 했음.”

“(주희의 작업 계획은) 3분짜리 같은 동작(무용)을 20번 반복하는 작업이다. 같은 동작이지만 20번을 반복한다면 그 동작에는 분명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무척 흥미로웠고, 결과물이 궁금했다. 이 작업은 무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들은 최황님이 이 작업을 영상으로 찍어도 좋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고.”

한편 작가들은 장애의 개념을 논할 때 대화가 조심스러워지고 경직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라움콘의 Q레이터와 송지은은 장애 개념이 협업에서 유연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대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잖아. 윤리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윤리적 올바름보단 입장에 대한 표명, 의견, 실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장애 예술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윤리적 문제로 삼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시도나 답론 형성이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 워크숍을 통해서 이 프레임이 유연해지길 바라.”

두 번째 모임에서는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가 얽고 넓게 펼쳐졌고, 결국에는 움직임을 통한 장애의 재현, 사회적 시선들로 이야기가 모아졌다. 안무가이자 퍼포머인 주희는 어떤 움직임이 장애를 대상화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정상성의 기준에서 드러나는지 고민했다.

“몸’을 기반으로 작업하는 나는 무의식중에 전제하는 몸의 기준이 늘 ‘비장애인’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처음으로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취약하고 연약한 공간으로의 몸을 전제해 보았다. 그리고 그 상상은 내 몸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화 시켰다. 외부의 개입으로부터 열려있는 공연예술의 형식은 연약한 몸과 닮아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는데, 이 만남이 기존의 내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느낌. 반가웠다.”

한편으로는 장애인의 몸과 움직임을 가시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준비’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준비의 강력한 이미지와 메시지는 구성원들을 사로잡았고, 준비라는 키워드를 재전유하여 장애인의 움직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볼 텐데, 그때 분장과 피가 흐르고, 몸도 찢어져 있고, 다친 사람들이라는 가시점을 만들어 주는 거야. 거리로 못 나가니까, 밖으로 못 나가니까. 나는 프리쇼 같은 거 하고 싶어. 실컷 와서 보라고. 그리고 다름을 느꼈으면 좋겠어. 한 열 명 되는데, ‘애네들 건들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몸을 보고 불편했으면 좋겠어?”
“예전에 내 목소리가 사방으로 퍼졌는데, 장애인 언어가 나한테 불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 나를 봐라. 나 지금 여기 살고 있다. 다들 좀 나를 봐라. 외쳐보는 거지. 준비로.”

“라움콘은 스스로 비장애인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며 그 차이를 고스란히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과감한 입장을 첫 만남에서 던져 놓았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주 명확해졌다. 그가 기획했다가 실현하지 못했다는 프로젝트였다. 어느 날 좀비 영화를 보던 라움콘의 Q레이터는 느릿느릿 비틀대며 걷는 좀비들을 보다가 그것이 배우의 연기임을 새삼 떠올렸는데, 본인이 좀비 분장을 하고 걸으면 연기를 넘어서선 퍼포먼스가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라움콘은 Q레이터의 편마비 병실 동기 네 명과 함께 좀비 걸음 퍼포먼스를 기획해 모 지역 거리예술제에 지원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라움콘은 면접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위원 한 명이 라움콘에게 질문했다.

“다른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움콘의 이 기획은 거리예술제 공모에서 탈락했다. 탈락의 과정까지 위협 포럼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좀비 되기’를 구현하기로 했다.”

‘좀비’라는 주제를 확정한 이후, 작가들은 각자 창작의 방법을 공유하고 언어를 나누기 위하여 워크숍의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텍스트, 퍼포먼스, 영상 등 다양한 형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살려 각자 자신의 장르에 접근하는 방법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자는 것이었다. 워크숍은 차례로 주희의 몸 움직이기, 라움콘의 좀비 되기, 김해솔의 시 쓰기, 최황의 영상 만들기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구성원이 각자가 잘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에게 알려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워크숍을 통해



각자의 몸과 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걸 ‘말’의 형식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갖고 싶은, 또 하나의 언어 형식 가령 몸이라거나 그림이라거나 영상이라거나 같은 형식을 통해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보여주기로 한 것은 ‘좀비 되기’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기로 했다.”

첫 번째는 안무가 주희의 ‘본격 현대무용 안무가의 몸 사용법 워크숍’이었다. 현대 무용을 접해보지 않은 이들에게 신체를 이용한 감정 표현의 기초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열어 ‘좀비 되기’에 필요한 기술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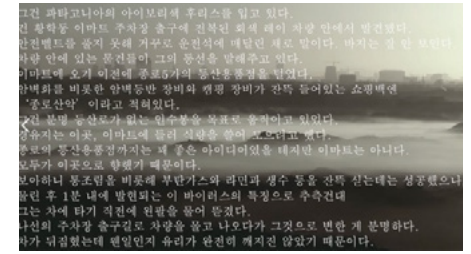
“서로가 서로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어 각자의 장르에서 주로 다루는 미디어의 사용법을 서로가 공유하기로 한 후 첫 번째로 열린 안무가 주희의 몸 사용법 워크숍. 여기서 우리는 이 워크숍의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 시간은 마치 야구 선수가 농구 선수에게 공 던지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이후로 무엇이 진행될지 뚜렷하게 보였다.”

그다음 모임에서는 라움콘 Q레이터 주도로 좀비 움직임 워크숍이 이어졌다. 메트로놈을 이용하여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Q레이터는 점점 더 느리게 걸기를 유도했다. 참여자들은 느리게 걸을수록 모두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바뀌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술회하며, 속도에 중점을 두고 좀비의 움직임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걸었어. 그다음 걸었어. 그리고 걸었어. 근데 더 느리게, 더 느리게 거기에 맞춰서 걸기는 하지만 실수도 하고 스텝이 꼬이기도 하고 몸이 정체되기도 했지.”, “왜 느리게 걸었어?”

“나한테 최대한으로 호흡을 맞추려고.”

김해술의 시 쓰기 워크숍에서
최황의 시



이어 시인 김해술의 시 쓰기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구성원들은 기존의 시를 다시 쓰며 자신이 가진 언어와 단어를 점검해 보고, ‘좀비 소스’를 만드는 연습을 했다. 작자가 만들어 낸 좀비 캐릭터, 특성, 이야기는 개별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드러냈다.

“이 워크숍의 주제는 좀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비의 움직임과 언어 그 자체를 연구할 작정이다. 나는 일전에 이지혜 기획자가 대본을 쓸 수 있냐, 고 물으셨을 때부터 이 좀비 워크숍이 영화나 연극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대본화될 시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인물을 제대로 만들면 서사는 인물을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 워크숍을 통해 작자가 생각하는 좀비라는 존재의 상, 인간도 시체도 아닌 캐릭터를 구축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후 시각예술 작가 최황의 주도로 진행된 영상 워크숍에서는 영상 촬영을 위한 장비와 사람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 및 실습이 이루어졌다. 핸드폰을 활용해 영상을 찍고, 동일한 영상 푸티지를 가지고 각 창작자가 최황의 팁을 활용해 직접 편집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영상의 순서와 리듬, 방향과 효과는 작가들이 결정하였다.

“영상으로 대상을 만나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이 다채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는 워크숍 마무리에 각자 편집한 영상 결과물을 보았는데, 같은 재료이더라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물이 되는 비교가 흥미로웠다. 영상 편집의 방법으로 안무하는 연습을 해봐도 재밌겠다는 생각!”

“우리의 ‘좀비 영화’ 프로젝트는 이렇게 작자가 다루는 미디어의 기초 기술들을 공유하는 일종의 연구 개발 과정을 통과하며 서로 어떻게 좀비가 될 수 있는지, 서로 어떻게 영화라는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5

위험포럼2
'공동창작이란?'

1)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이슈



정체성에 관한 확인
예술가로서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절단'과 '연결'
예술가의 정체성을 이룩하는 과정

자발성 + 의욕 + 열정 + 기여

시간 >> 사회적 비용 / 개인적 비용
역할 >> 자율적 / 수행적

2) 과정의 방법론상의 특징



프로바이더 역할
예술가의 강력한 성향이 전체 기초를 이끄는 현상

주제중심 >> 효율적 / 목적지향 / 확정적
본질중심 >> 비효율적 / 불안정성 / 비확정적

3) 자발적 워크숍의 방향성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워크숍 도구

방향성 >> 구상에 대한
방법 >> 구현에 대한

‘공동창작’이란 무엇인가?

위협포럼2에서는 위협포럼1에서 제시되었던 ‘위협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창작을 위한 ‘자발적 워크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질문을 서로 공유했다. 기획 초기에는 활발한 각 모듈에 대한 서로의 질문이 오가고 본 과정에서 마련된 공동창작에 대한 목표지점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위협포럼2까지의 과정에서 작가들은 근본적인 질문들에 집중했다. ‘함께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인가?’를 물으며 ‘공동 창작은 무엇인지’ 찾는 과정을 지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창작을 지원하는 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행정적 규범과 제약이다. 모든 창작의 행위가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한 사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할 때 본 사업 또한 그의 과정 어딘가에 위치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사업을 기획했다. 규범과 제약을 최소화하고, 결과물에 대한 목표 지향적 태도를 최대한 지양했다. ‘자발적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작가들의 만남을 정의하고 횡수나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 매개자가 모듈별로 참여해 작가들의 열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개자는 관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워크숍의 과정에서 어시스트의 역할만을 수행하며 일어나는 공동창작의 화학작용을 엿보고 메모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일부 작가들은 ‘자발적’이라는 설정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다. ‘얼마만큼 만나야 해요?’, ‘최소 몇 번 만나면 돼요?’, ‘뭘 해야 해요?’, ‘결과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은 자신의 창작 영역을 제도나 정책에 귀속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다. 다르게 말하면 제도권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어떤 조건에 의해 목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합의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합의는 창작의 순수성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굴레가 된다. 재단은 창작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작가에게 제공하고 작가는 자기 삶 전반에

걸친 과정의 일부를 기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재단은 사업을 통해 작가의 작품을 오롯이 보여주길 싶어 하지만 결과에 대한 상 또한 가지고 있다. 작가는 재단의 조건이 동기가 되어 자신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어떤 요구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부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창작자의 핑계이거나 모멸할 어떤 구멍인지도 모른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전, 기회 등 본래 목적했던 바는 순수한 영역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작지원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자발적 워크숍의 큰 틀은 공동창작 과정에서 질문을 이끌어내고 대화를 나누는 ‘포럼’의 형태를 취했다. 이는 창작의 결과물을 목표로 하기보다 작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이 변화는 포착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본인 역시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너무 거대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사례로 들어 모두 기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위협포럼’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 작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질문을 나누면서 영감을 주고받는 데에 있었다. 위협포럼2를 지나면서 지점이 명확한 사람도 있고 표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들은 나름대로 고민의 출발 지점으로 위협 포럼의 좌표를 인식했다. 지금까지 쉽게 건드려지지 않았던 영역에서 질문이 일어나게 하는 데에 동료들의 질문들이 작용한 것이다.

매개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정찰하는 정도의 역할과 작가들을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은 매개자도 작가들의 질문에서 역할이 생겼다. 창작의 안팎에서 작가들의 합의된 참여에 관해 확인했다. 그들의 질문은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창발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작가가 아니세요?’ 매개자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점으로 향했다. 위협 포럼의 작가들은 강제로 동료들 얻었다. ‘재단의 계획’, ‘기획자가 가진 모듈 구성의 의도’가 작가들의 ‘참여 의지’나

'목적'보다는 명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강제로 동료를 얻었다'라고 표현했다.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가들에게 사람에게 주목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업은 어떻게든 결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23일까지의 자발적 워크숍의 단상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창작자들은 자발적 워크숍 안에서 예술과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 본인의 내면에서 부유하던 예술가나 작가 또는 창작자에 대해 질문하고 확인했다. 많은 경우가 현실에서 생업과 예술 활동의 비율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사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또 다른 경우는 함께 하는 창작자와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자발성, 열정, 의욕, 기여에 대한 부분이었다. 정체성의 물음을 일으키는 4개의 키워드는 시간과 역할 두 가지 범주에서 발생했다. 공동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역할이 자율적인 경우는 시간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생각하여 자율적으로 조율했으며 개인의 역할을 수행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간을 사회적 비용으로 소비했다.

2

공동창작의 과정에서 모듈별로 집중한 질문은 주제 중심이거나 본질 중심이었다. 공동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듈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합의한 주제에 집중하는 경우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에만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잠정적인 목표를 향해서 움직였고 목적인 결과물은 확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작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참고 자료를 나누거나 방법론을 찾는 이야기에 집중했다. 예술과 창작의 근원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는 과정이 더 비효율적이었다. 공동창작에서 목적하는 바를 찾기보다 본질을 함께 탐구하면서

비확정적으로 움직였다.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추출되는 내용으로부터 창작의 기로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함께 수행하면서 참고 자료를 공유하고 방법론을 찾아가는 방법과 달리,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각자가 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개별의 세계에서 공통점을 찾아 공동창작으로 나아가려하는 노력은 전자보다는 역할이 불분명하고 시간의 쓰임이 다소 비효율적인듯 했지만 본 사업이 목표로 삼았던 작가들의 발전이라는 영역에서는 각 작가들을 더욱 근본적인 질문에 놓이게 했다.

3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만약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왜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시간이나 사업 형태에 맞추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지속해서 도망치며 모듈 구성원들의 존재에 대한 탐구와 그 사이에서 연결되는 지점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작가들은 작업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잘 모르는 동료에게 자기를 설명하며 같은 지점을 찾거나 다른 지점을 발견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과정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과 처음으로 질문을 받아 전복의 단초를 마련한 부분들은 작가에게 전환을 일으키는 지표가 되었다. 작가들은 이런 과정을 다소 어려워하는 동료 작가에게 자신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해방구를 찾기 위해 마련했던 방법론을 공유하기도 하고 워크숍 형태로 공동 수행의 방안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반대로 구현에 집중한 모듈의 경우 방법론을 찾기 위해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했다. 시간이나 사업 형태에 맞추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잃지 않으면서 구성원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했다. 기획자는 사업안에서 작가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의심 없이 믿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전수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근본적 질문들에 대해서는 공백을 유지하고 있었다.

위험포럼2 '공동창작이란?'

공동창작이란 무엇인가?,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구체적이지 못한 질문에서 나아가, 참여하는 내가 얼마나 공동의 영역에 나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있고, 적정선을 찾을 생각이 있는지, 타인의 방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를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지나치게 포용하는 건 아닐지, 다른 이의 생각이 나의 생각인양 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왜 항상 수동적인지, 반대로 나는 왜 다른 이의 열정을 속단하는지, 이런 번잡한 과정 속에서 찾아야 하는 예술은 무엇인지. 질문의 차원을 열어가는 데에 두 번째 위험포럼의 의의가 있었다.





6

위험포럼3
창작의 자유

단 하나, 창작의 자유

위협포럼은 산마루를 지나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 포럼에서 작가들에게 요구된 것은 창작물에 대한 공유였다. 위협포럼 마지막 포럼일이 다가올수록 ‘창작물에 대한 공유’는 작가들 사이에서 사실상 ‘결과물’로 이야기되었다.

일부이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라는 초조함도 보였고, ‘이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느껴졌다. 지금까지는 과정이라 생각했지만,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며 과정과 결과를 분리하는 경우도 보였다. 매개팀은 창작물에 대한 공유가 무엇인지 묻는 작가들에게 함께 하는 과정 중의 한 지점을 공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것이 과정상에서 나온 작품이든, 부산물이든, 아카이브든 그 형태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함께 한 시간을 동료에게 공유하는 것이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재차 설명하는 일은 위협포럼이 그토록 지양했던 ‘목적지향’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 ‘사건’ 같이 여겨졌다.

위협포럼2에서 대두됐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는 공동창작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현실적인 한계들 사이에서도 불구하고 예술가라는 정체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모두의 과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였다. 주도하는 작가들은 자신의 현실과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작가를 독려하기도 하고 상대가 차마 보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문하거나 간접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키 역할을 했다. 타인과의 조율이나 토론을 피하고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질문을 받은 작가들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대해서 고민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작가들은 행위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다른 작가의 작업 방식을 모방하기도 했다.

공유의 시간이 가까워오자 작가들은 지금까지 차별하게 곱씹어 왔던 방법이

기한 내 끝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일단 근본적인 질문이나 대화 등 지금까지 해온 과정을 접어두고 결과물을 내는 방향으로 움직이길 원했다. 또 다른 작가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과정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작가들은 적정선에서 자신과 타협하거나 동료를 설득하거나 하면서 그들이 함께해온 시간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를 선택했다. 간혹 이 과정은 비슷한 정체성과 예술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가지고 함께 새로움을 찾거나 대적해 서로를 전복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과정이 아닌 사업에 참여하는 창작자로서 피하기 어려운 사회생활의 연장선으로 보이기도 했다.

작가들은 자발적 워크숍을 통해 모듈별로 공동창작을 위한 ‘도구’를 마련했다. 모듈별로 과정을 주도하는 작가들이 두드러졌다면, 그에 맞추어 동행하는 작가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히려 그렇게 누군가가 주도하는 것이 불가분한 이치인 듯했다. 주도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다른 이들과 함께 작업한 경험이 많았다. 작가마다 제각기 창작 주기가 달랐기 때문에 작업 방법론의 전문성에 의존하거나 풍부한 레퍼런스의 제공에 반응하는 등 작가들은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작가의 리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모듈에서 보다 경험이 많은 작가와 함께한다는 사실은 함께하는 작가들의 예술가 정체성을 강화했다. 동료들의 인정에 따른 자기 확신의 에너지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 기초를 유지하며 각자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갔다. 순간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보다 명확해진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이끌어가는 작가들에게서도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다. 배우는 것보다 책임을 지고 선택하는 데에서 오는 에너지 말이다.

주체들은 성공적인 원초적 관계 유형에 속하는 융합과 자아 분리의 긴장감 넘치는 균형 속에서 서로 자신의 개인성이 사랑받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두려움 없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믿음의 유형은 모든 유형의 자기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왜냐하면 이 자기믿음 속에서 각 개인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게 하는 내적 자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어떤 제도화된 형태를 갖든지 사랑의 경험은 '인륜적' 성질을 갖는 모든 생활 형식의 가장 내적인 핵심이다. 그러나 사랑은 그 근본 규정상 변형 없는 그 자체로 탈전통적 인륜성 형태의 상호주관적 망 속에 편입된다. 왜냐하면 사랑은 규범적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어떤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한편, 사랑의 불변적 근본 구조가 왜곡과 강제 없이 전개되면 될수록 우정이나 사랑관계에 있는 상대자들이 더 많은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탈전통적 인륜성이라는 형식적 개념은 외적 강제와 영향에 대항하여 사랑의 근본적 평등주의를 변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악셀 호네프트. 문성훈, 이현재 역. 인정투쟁. pp.321-322

이후 작가들에게 2024년에 우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도 마찬가지로 몇몇 작가들에게는 큰 변화를 일으켰다. 과정의 창작물을 작품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경우 소유나 창작에 기여한 정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계가 흐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 부산물일 경우 그것의 작품 여부를 가리는 데에서 다른 의견, 아카이브일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등 작가마다의 입장이 있었다. 왜 공동창작과 전시 사이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 개인 작업과 공동작업과 전시할 작업이 분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가 되기는 참 어려운 듯하다. 현실에서 관념을 지키며 예술과 예술 관련 일과 비예술일 사이에서 자신의 축을 세우고 어떤 다른 축이 교신을 원할 때 자기 축의 운동성을 잃지 않고 함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택하려면 타자의 입장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사업의 순간마다 드러났다. 이는 주체와 대상에 대한 의견과 성찰을 깊이 확신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위협'이라는 전제가 주어졌지만 사실상 과정상에서 위협하기가 더 어려운 듯 보였다. 자칫 자신의 작업 내부에서 상대를 대상화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대상화해야 할 때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이느냐는 자신의 예술 철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매력적인 키워드로 다루려 할 때 현실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스스로 돌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불안정성 안에서 불확정적으로 움직이며 신호를 보내는 행위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론적 탐구, 세상에 대한 인식론적인 탐구,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탐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작가의 삶에 대한 모든 이유가 되고 방법이 된다. 이러한 탐구의 과정에 있지 않을 때는 기술자로 전락하거나 별이를 위한 일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예술이라는 환상을 수단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찾기 위한 과정은 험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협포럼'은 안정을 추구하는 작가들에게 혹은 안정을 제공받는 작가들에게 그들이 위협해질 수 있는 기회와 좌절의 가능성으로 몰아넣기 위한 설정이었다. 하지만 작가들은 안정적이길 바랐다. 창작을 주제로 한 사업 내부에서 자신의 역할을 기획진에게 물었고 과정과 결과의 영역을 구분하며 사회에서 바라는 바에 들어맞는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또 장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장애의 영역을 찾고자 했다.

혼돈의 이념은 사람의 마음을 위협한다. 질서가 없는 곳, 즉 혼돈 속에서는 웬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카오스(혼돈)를 대신해서 코스모스(우주)가 설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아도 완전하게 제대로 성공되어 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즉 코스모스에도 역시 살아갈 가능성을 배제하는 약간의 질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질서의 이념은 우리들 혼의 구조 자체와 그토록까지 유착되어 있는 것이다. 제대로 말하자면, 혼돈은 모든 질서의 결여이다. 한데 이 질서란 생명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바로 그것에 다름 아니다. 혼돈은 결코 국한된 가능성이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다. 즉 한정되는 일 없는 무한의 가능성이다.

절대적인 자유를 파악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들 인간에게는 한없이 곤란하다. 항상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인간이 빛을 보는 게 곤란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반론이 되지 않는다.

질서가 군림하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에 발생한 생명 속에서도, 더 크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갖가지 난사가 발견되는 판이니 더 말할 게 없다.

이러한 많은 난사를 알고 있는 자야말로 혼돈의 이념을 상대로 해서 두려워함 없이 운을 시험할 수 있는 자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야말로 어찌면 락은 카오스(혼돈)에 유래치 않으며, 오히려 코스모스(우주)에 유래하는 것임을 확신하기에 이르게 되리라.

공동창작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주체와 대상에 대한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위험포럼의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입장은 다양했다. '나도 장애인이다. 이 스튜디오에 입주할 자격을 달라.', '그의 장애가 명확하지 않다.', '장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 '그의 장애를 이해하기 힘들다.', '장애로 인해 친해지는 데 한계가 있다.', '나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다.',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등. 이처럼 장애는 특수한 상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지만 긴 시간을 두고 함께 하다보면 마치 성격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특성 사이에서 유독 장애에 대해서만 분명히 하려는 것은 장애에 관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그의 두드러지는 장애의 특성 때문에 친해지고 싶고, 누구는 장애의 특성 때문에 가까워지기를 꺼렸다. 누구는 보이는 장애도 상관없었고, 누구는 안 보이는 장애도 눈앞에 꺼내 놓고자 했다. 누구는 자신의 장애를 두고 타인들이 왈가왈부 이야기 나누는 지점에서 오히려 홀가분해지기도 했다. 타인의 장애를 두고 왜 감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왜 뭐가 불편한지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장애라는 기준이 신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에서 탈락해서 다른 기준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타인의 특성을 계속 헤집는 오류의 과정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인사이트였다.

현대 프랑스 철학과 정신분석에서는 질서를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부르는 상태가 아주 특수한 것이라고, 세상은 무질서나 비정상의 상태가 훨씬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신분석입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저는 정상인데요”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물론 일반적인 의미의 정상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 것이 정상인데요, 그것은 상징계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이외의 실재계를 포함하는 여러 정신병리현상도 지금 현실 사회에 적용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신분석의 열려 있는 관점입니다.

장용순 저. 라캉, 바디우, 들뢰즈의 세계관. p.60

언어가 소통이라면 소통으로서 사람을 쓰임을 구분한다. 소통이 안 되면 무용한 사람이 되고 소통이 되면 유용한 사람이 된다. ‘언어, 제스처, 몸짓, 소리, 냄새, 느낌 놓치지 않고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한 작가는 이야기했다. ‘친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한 작가는 이야기 했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주체가 되기도하고 대상이 되기도 하는 무한한 소통의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언어는 무엇일까?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 진정한 언어라는 것이 존재할까? 인간이 마련한 언어체계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까? 각기 다른 문화에서 발생한 각자의 언어는 온전하게 우리의 소통을 표현하고 있을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할까? 나에게 선택되지 않은 것들의 안전함, 나에게 선택된 것들의 위험함.

야망에 찬 사람들은 마치 최적화가 즉시 하늘까지 올려줄 수 있는 동아줄인 것처럼 최적화에 매달렸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적화는 확실히 그런 것이었다. 신경 매개체를 얻는 것은 하버드 대학 학위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 최적화는 새로운 것이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 최적화는 새로운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냈다.

(…)

반면에 최적화된 “새로운 사람들은 악취로 가득한 시설과 인간의 오물을 불안해한다.” 그들은 그런 “원시적 불결함”을 가능한 한 피하고, 수술을 받지 않은 낡아빠진 사람들과 가능한 한 떨어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사실상, 최적화된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종이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들은 혼란의 시기 속에서 특이점을 포용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 단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지나치게 인간적인 것으로 남아있는 이 사회에 자신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고 확신한다.

스티븐 샤비로 저. 안호성 역. 탈인지. pp.198-200

마지막 세 번째 포럼을 기준으로 우리는 위협포럼의 고삐를 놓았다. 얼마 동안 감당해 온 다른 존재에 대한 고삐 풀린 감당이, 성찰이, 탐구가 얼마나 자유로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7

교신이 끊겨도
여행은 계속되리

[1] 진주민 · 이영은 · 재아

김진주를 비롯하여 김민이, 신영은, 매개자 김재아로 이루어진 이 모듬은 별도의 모듬 이름을 짓지 않았다. 사실상, 다른 모듬들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 역시 위험포럼의 중반에 접어들어 뒤늦게 알게 되었다. 대신 신영은은 매개팀에 공동창작의 기록을 보낼 때 늘 제목에 모듬 구성원의 이름을 나열한 '진주민이영은재아'를 넣었다. 그만큼 이들은 모듬 바깥에서 영향과 영감을 받기보다, 매개자를 포함한 모듬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데 집중하였다.

2023년 '진주민이영은재아'는 서로의 방법을 선택하는 시도를 해 보았다. 서로의 신발에 발을 넣어 본 것이다. 매번 만남마다 이들은 함께 정한 단어들로 각자의 회곡을 만들어 왔고, 만나서 함께 사용해 본 적 없는 신체를 이용해 드로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과 매개자는 서로를 알아가고 작업의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작품과 별개로 나눈 이야기들은 작업에 섞여 들어가 공동창작의 세계관을 만들기도 했다.

한번은 장애인 화장실로 대표되는 사회의 기술적 장치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 있다. 장애인 화장실은 편리해 보이는 자동 닫힘 버튼과 널찍한 화장실 공간을 갖춘 선진적인 공간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치가 망가지면 언제든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 어디보다 위험하고 불편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명목상으로는 장애인을

고려하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실을 충족시키지만 실제로는 손잡이나 점자 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화장실을 회곡에 등장시킨 작가는 이 시스템이 실패할 때 발생하는 구멍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의 형식과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작품에는 화장실을 연구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난 연구원들이 한국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붕기가 일어났다는 심각한 사건을 전한다.

이들이 지금까지 쌓아 온 이야기들과 드로잉, 회곡들은 어쩌면 공동 창작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시작점이자 재료였을지 모른다. 함께 나눈 시간과 비공식적인 이야기, 감상, 근황, 공통의 관심사는 창작에 파고들었고 피어나고 있다. 작가들은 지속해서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가벼우면서도 모듬의 공동창작이 향하는 방향성에 맞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다. 극작가가 스토리를 쓰고, 화가가 그림을 그려 동화책을 낼 수도 있다. 반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겠다.

[2] 곤란포럼

‘곤란포럼’이라는 모듬 이름은 송상원이 자주 하는 말에서 가져왔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곤란하다’ 한다. 장애가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비장애인은 장애를 마주하거나 장애인과 소통할 때 더러 곤란함을 느낀다. 작가들은 곤란한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송상원이 비평가로서 비평의 대상인 다른 작가들 앞에서 가감 없이 그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상황을 만들어 본 것이다.

작가들은 같은 주제로 작업을 수행하고, 비평에 영감을 주기 위해 전시를 함께 보러 가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예상치 못한 화학작용을 불러왔다. 서로의 존재에 보다 익숙해지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서로의 존재가 보다 편해지면서, 작가들은 작업의 태도와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의 어려움 등,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을 공유하게 되었다. 보다 힘을 뺀 작업 형식을 시도해 보자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사소하게나마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두가 공감한 이야기는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작가들은 한 명이 꺼낸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말로부터 시작되어 각자가 가진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 하게 되었다. 어쩌면 곤란포럼의 문을 연 비평 실험 역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작가들은 친구에 대한 정의도 제각기, 친구를 만들어가는 방법도 제각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협업과 관계에 대해서도 더 이해하게 되었다. 레시피나 지도와 같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지시문의 형식을 가지고 친구라는 건 무엇일까, 각자가 바라는 관계는 무엇일까 탐색해 보기로 했다.

[3] 니키노 유다영 이나래 임미정

위험포럼에 참여해 서로의 '위험'을 꺼내놓는 자리에서 모두 구성원 모두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서의 두려움을 탐구하고자 "내가 살아있었을 때"라는 주제를 정했다. 이후 개인 작업을 소개하는 화상회의를 통해 사용하는 각자가 다루는 재료와 매체, 공간을 소개하고 서로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시간도 보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작업과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점점 쉽게 마련하지 못했을 때, 작가들은 동일한 환경과 작업, 같은 주제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자신에게 익숙한 장르나 재료가 아니라 모두에게 익숙한 글쓰기라는 도구를 통해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릴레이 퍼포먼스를 했다.

한 자리에 앉아, 누군가가 쓴 목소리에 뒤이어 써 내려가는 시간이었으며, 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고, 답하기 어려울 땐 회피하기도 하면서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이때 꺼내진 이야기, 발견한 모습들은 앞으로의 공동창작의 물꼬를 터주었다. 서로를 참조하고, 대조하고, 뒤섞는 시도를 한 것이다.

작가들은 여전히 공통의 영역을 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으며, 불편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서로가 다른 지점들을 꾸준히 발견하고 마주하며 쌓고 있다. 날로 익숙해지면서 날로 낯설지만 말이다. 작가들은 공동 '창작'을 위해 만나고 모이고 부대끼고 있지만 결국 이 과정은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 '자신'은 공동창작의 과정에서 불쑥 존재감을 드러내며 작가들을 고민하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

위험포럼의 과정을 마무리 지으며 참여작가 중 두 작가는 다시 해외로 떠나게 되었다. 누군가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오랜 시간 붙잡았던 과정에 위험포럼에서 발견한 관찰한 서로의 이야기, 인상, 감각들을 구석구석 녹여내고 있다. 작가들은 또다시 낯설어지고, 익숙해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공간,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대화하고, '공동'의 영역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한다.

[4] 썬더볼트

썬더볼트는 협업의 과정에서 변덕이는 순간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하지혜 안무가가 고안한 이름이다. 모두의 구성원들은 안무와 퍼포먼스, 섬유, 사운드와 영상,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업한다. 이들은 작업과 삶에서 스스로가 느끼는 지점에서 출발하여, 공동창작을 위한 태도를 점검하고 주제를 고민하게 되었다.

초반에 창작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편안하게, 불편하게 느끼는지 꺼내 놓고 다른 이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삶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경험이 꼭 함께 창작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공동 창작의 길은 요원해 보였고, 작가들은 여러 도구를 고안하여 작업 세계를 포개놓고자 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 동안 서로가 공유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똑같이 시각을 통해 감각하는 작업을 하더라도, 누구는 운동성에 집중하고

누구는 빛과 패턴에 집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두 번째 전체 위험포럼에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나의 작업이 온전한 작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작가들 자신의 목소리로 공유하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작가들은 구체적인 작업물을 생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작업과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해방감에 집중하고자 했다. 어떤 작가는 계획된 구성과 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체계를 해체할 때 해방감을 느낀다고 했고, 다른 작가는 개인적 고민을 타인과 나누는 과정이 해방인 것 같다고 고백했다. 작가들은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에서 해방감을 찾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작가들의 고유한 고민과 작업 세계, 모습으로서 썬더볼트의 고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5] 좀비

모듬을 이루는 창작자들은 ‘좀비’라는 매력적인 키워드 아래로 모였다. 당사자성, 대상화의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재현하기조차 꺼리는 장애인들의 신체 움직임을 좀비라는 상징을 전유하여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라움콘의 기획이 다른 작가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물리적 운동일 뿐인 장애인의 신체 움직임에 달라붙은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들을 경쾌하게 뒤집어 버리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작가들은 장애와 신체의 움직임, 사회적 시선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거나 가벼운 다양한 분위기의 만남에서 나누었다. 이어 수행된 워크숍은 합일된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도 했다. 무용, 움직임, 시, 영상으로 구성된 네 번의 워크숍은 모듬을 이루는 작가들이 각자의 장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작가들에게 방법론을 공유함으로써 협업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좀비 작업이 멤버들의 높은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작가들이 창작자인 동시에 기획자였던 까닭도 있을 것이다. 영상을 만드는 최황이나, 프로젝트 형태의 다양한 예술 기획을 이어 온 라움콘은 여러 주체와 함께 협력해 왔다. 다양한 이들과의 협업 과정에서는 팀에 분명한 역할이 있는 구성원들이 맡은 일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방법일 수 있다. 모듬의 공동 창작 방식 역시 이러한 길을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고 합의 맞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작가들은 안무가의 구상으로 만든 좀비의 움직임을 담은 영상과 시인의 이야기를 텍스트로 담은 영상을 편집하여 2채널 비디오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거리 축제에서 좀비가 걸어 다니는 퍼포먼스를 떠올리기도 했다.



8

장면들

쇼가 되어야 하는 존재: 비-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윤은호

1900년대에 모토겔이라는 ‘로봇’이 있었다. 이 ‘로봇’은 그의 매니저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녔다. 전원을 연결하면 움직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58cm*33cm*33cm밖에 되지 않은 매우 좁은 상자에 ‘있었다’. 베를린에서 사흘 동안 독일 대법관들에 의해 이뤄진 검증을 통과한 이 로봇의 정체는 미국 사람이었다. 그녀는 로봇의 삶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기에 수많은 관객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월드투어를 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녀는 어느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근대는 전반적으로 구경거리를 찾는 시기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여기에 응해 수많은 마술사, 오토마타와 ‘로봇’, ‘기형인’, ‘야만인’이 등장했다. 그러한 와중에 사람들의 눈은 높아졌고, 이에 맞춰 이에 대응하는 사람들 또한 더 높은, 정확한 트릭으로 관객들을 상대해야 했다. 결국 이러한 구경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진정될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일례로 골프만이 <스티그마>를 냈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장애인들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병원’이나 시설에서 살거나, 어릿광대 역할을 받아들이며 몇몇 ‘일반인’과의 사회적 소통으로 만족하거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기층적 ‘사회적 약자’가 되어야 했다.

모더니티의 시대 로봇은 인간의 선망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칭찬도 받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받았다. 지금이야 인공지능으로 인해 ‘마음’과 비슷한 것이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로봇은 오랫동안 ‘마음’이 없었던 존재로 평가받았기 때문이었다. (<오즈의 마법사>에서 기계가 되었다는 이유로 ‘마음이 사라진’ 양철나무꾼을 생각해 보자). 더 나아가 기계의 힘만으로 인간과 동일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로봇 전시장에 가서 기꺼이 돈을 냈고, 덕분에 가짜 로봇도 행행했다.

그리고 20세기에 또다시 ‘마음’이 없는 존재로 평가받았던 존재가 자폐인,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이다. 칸너와 아스퍼거에 의해 보고된 이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많은 장애인들이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후 여러 잘못된 가설들에 의해 자폐스러운 모습은 비-사회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응용행동분석은 아예 자폐인을 마음이 없는 비-인간으로 정의하고 ‘그들에게 인간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더 나아가 1990년대에 들어서 바론 코헨 같은 진화심리학자들은 자폐인의 ‘마음 이론 없음’을 증명하는데 열심이었다. 결국 자폐인의 쓸모가 평가받게 된 것은 등록에서 빠진 자폐인들이 공대에 모여 대량으로 IT 기술을 주도하고 이들이 실리콘 밸리로 진출해 IT 산업 및 학계를 주름잡게 되면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부터 인터넷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던 자폐인들이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다. 그렇다면 1세기가 지난 지금, 로봇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이 사라졌기에 우리는 더 진보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비인간화의 대상이 로봇에서 인종으로, 또다시 자폐인으로, 또 다른 누군가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일까? ‘아토믹 보이: 지상 최근의 쇼(이하 아토믹 보이)’는 바로 이 지점을 짚는다.

‘아토믹 보이’가 처음 소개되었던 박철호의 개인전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안, 세계장애인연맹(DPI)의 총회로서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열렸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환영 동영상을 보냄과 동시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부산을 방문하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직접 행사장을 방문할 정도로 상당히 큰 행사였다. 그러나 이 행사에 자폐인이나 신경다양인 등 조직으로부터 배제된 장애인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나올 기회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1세기 전, 로봇에게 보였던 상반된 관점이 지금 자폐인에게 재현되고 있다. 1세기 전에 마음이 없었기에

두려움을 보였던 사람들은, 한편으로 사람의 손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자아내는 구경거리 대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한편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무능력, 아니 마음-없음이 강조되며 GPS 추적장치 발부부터 시작해서
24시간 국가돌봄제, 심지어 시설 존치를 요구하는 시선이 있는 반면, (반항으로 인해
덜 주목받지만) 나같이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은 자주 언론의 취재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우리 자폐인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들은 앞으로도 유망한 '자폐산업단지'를
돌리는 소중한 자원이 된다.

'아토믹 보이'는 바로 이 지점에 대한 대안적 시선을 모색한다. 장애 당사자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에서 배제된 정신적 장애인, 특히 미등록 당사자들이
칭찬받는 서커스의 단원이 될 가능성을 '아토믹 보이'는 보여준다. 놀랍게도 작중의
세계는 완벽하지 않은 기계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작품 전반에서 로봇이 된
'인간'들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실수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로봇'의 세계에서 21세기의 로봇,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실수로 칭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받는다.

물론 해당 세계가 여전히 자본주의와 객체화, 그리고 관음증적 시선을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회토'는 단장과 관객의 시선
사이에서 줄타기하다 양쪽 모두의 시선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국 '회토'는
비자폐인은 감당할 수 있지만, 신경다양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모순된 지시들을
이기지 못하고 서커스를 위한 최상의, 그리고 최악의 선택으로 내몰린다.

'아토믹 보이'는 그래서 시지프스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한다. 로봇이라는 굴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만, 인간이라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항상 평가받으며,
결국 언젠가는 부서지고 말 이야기 속의 로봇들은 자폐스러운 소통방식을
부정당한 채 여전히 사회 주류의 소통방식에 맞추기를 강요받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표상일 수도 있겠다. 아울러 비장애인들에게도 모더니티의
굴레는 무겁고 힘들다. 우리는 권력에 의해 길들여져 있고, 주어진 경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일들은 쉽게 범죄나 '이상'으로 여겨져서 처벌받은 수십년 동안의
긴 슬픈 과거사를 겪어왔다. 이 작품은 근대 초기(무성영화)부터
60년대(아톰과 시나트라), 현대 시대(극단화된 산업자본주의, 예술지원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더니티의 자산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조금 뒤집어 생각해보면, 작중의 세계에서 로봇의 실수를 칭찬하는
많은 관중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인 우리와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세계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이들도 그러한 반응을 보이도록
훈육되고 통제되었기에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사에서, 학교에서, 더 나아가 여가 시간까지 부과받는 수많은 모순된 요구를
되짚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장애를 빼고 미학적으로만 생각해도
논의거리가 꽤 많은 작품이겠다.

참고문헌

Broderick, A.A. & Roscigno, R. (2022), Autism, Inc.: The Autism Industrial Complex, Journal of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2, 77-101. doi:10.1163/25888803-bja10008
Griffith, D.M. (1905), The Automation Girl, The Strand Magazine, 29(172), 450-455.

위험! 가볍게 산책하기

김재아

서로 다른 것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위험한 가능성들을 열어두자는 야심찬 의도로 출발한 만큼, ‘위험포럼’은 구상 초기부터 열린 구조를 가진 기획이었다. 계획 하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와 도달하는 지점이 분명한 여행보다는, 몇 가지 원칙만을 세워두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채로 떠나는 여정에 가까운 궤적을 그리는 것이다. ‘위험포럼’을 기획한 매개자들은 보편적인 발견을 목표하기보다 우연찮게 발생하는 상황과 상호작용들 자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두껍게 기술하고자 했다. 창작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작품 세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이 충돌할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목격하는 것이 ‘위험포럼’의 의미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작가이자 장애인 운동가인 해리엇 맥브라이드 존슨에 따르면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가장 친밀한 도구이자,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서 있는 곳,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유일한 가능성이 아님을 깨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한다.¹⁾

매개자가 목격한 ‘위험포럼’ 모듬의 김진주, 김민이, 신영은 작가는 각 창작자와 매개자가 구성한 단단한 세계의 외벽에 금을 내고, 역할을 뒤섞는 반가운 혼돈을 만들어냈다. 이 혼란스러운 경험은 모듬의 구성원들이 가진 서로에 대한 막연한 호의와 수용에 바탕을 두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사적인 삶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좁은 틈으로 궁금함과 서로의 방법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기꺼움이 오갈 수 있었던 것이다. 모듬을 이룬 세 명의 예술가는 몸담은 장르도, 사용하는 매체도 상이했다. ‘위험포럼’을 계기로 처음 마주한 작가들은 함께 창작을 하기 위한 공통분모를 개인의 삶이나 작업에서 찾기보다, 이들을 불러 모은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위험포럼’의 위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각자에게 ‘위험’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¹⁾Harriet McBryde Johnson, Too Late to Die Young: Nearly True Tales from a Lif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2006)

연극의 극본을 쓰는 한 작가는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자유롭게 공동창작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털어놓았다. 요구되는 마감과 기준이 없다는 데서 오는 불안이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었다.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조건들은 창작물의 효율적 생산을 돕기도 하지만, 창작 과정의 틀을 지어 예상 가능한 결과로 수렴하게 만들기도 한다. 창작자들은 국가나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구조 안에서 이러한 기준에 익숙해졌고, 또 의지해왔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특정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당연했던 영역에서 벗어나,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으로 던져진 것이다.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지 몰라 불안한 마음은 ‘전면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부담과 맞닿아 있다. 프로 극작가, 미술 작가로서 기대되는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일 것이다. 다른 작가 역시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대한 압박에 대해 토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위험포럼’에서 정해진 것은 없다. 여기서는 시각 예술가가 회화 작업을 해야 한다거나 극작가가 연극을 만들어야 한다고 기대받지 않는다. 창작자들이 ‘전문 분야’에서 벗어나 모르거나 해본 적 없던 일을 해도 되는 공간이다. 그렇다면 공동창작을 ‘잘’ 해낸다는 과제를 정면 돌파하는 대신, 가볍게 우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작가들은 여기서 출발하기로 했다. 전문가로서 늘 해오던 영역을 벗어나 스스로의 새롭고 서툰 모습을 마주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각자 익숙하지 않은 서로의 작업 방식을 채택해보기로 했다. 시각 예술가는 극본을 쓰고, 극작가는 그림을 그린다.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나 오히려 가벼워진다. 이때 공동창작은 역설적으로 전업 작가이자 예술가, 창작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 된다. 여기에는 서로의 작업과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했다. 발로 식물의 섬세한 선을 그려내는 구축화가로 활동하는 작가는 늘 대담한 이야기를 써내고 싶어했다. 한편 인간 내면을 표현하는 회화 및 설치 작업을

해은 작가는 신체의 다양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작가는 사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본으로 써왔고, 시각예술과 전시라는 형식을 흥미로워했다. 마지막으로 예술로 정의되는 장 주위를 맴돌며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획을 시도해온 매개자 역시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인 창작에 매료된 사람이었다. '위험포럼'과 위험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전문가의 기획을 벗어나 초보로서 다른 방식을 시도하는 굵어진 우회로를 택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매개자인 나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이 얼렁뚱땅 공동창작의 여정에 매개자 역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기록자이자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고자 했던 매개자의 의도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작가들은 거리낌 없이 매개자를 창작의 영역에 초대했고, 매개자 역시 이 모둠의 구성을 '위험포럼'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가들과 틀을 만들어 낸 기획자로 역할을 나누기보다 공동창작이라는 실험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모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어서 기획과 창작의 경계는 희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험포럼'의 성격을 고려할 때, 매개자로 명명된 역할의 기획자들은 창작자들의 협업 과정에 어디까지 개입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해도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가 된 모듬은 가볍게 가기로 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나이나 가족의 형식 등 사회적으로 고정된 명목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호오와 생각하는 방식에서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냈다. 알고보니 우리는 모두 찬찬히 둘러 걷는 산책을 좋아하는 이들이었다. 매개자 역시 복잡해 보이는 질문을 고민하느라 멈춰있기보다 가볍게 둘러가기로 했다. 우선 시도하고, 만들어본다.

우리의 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하나, 모듬에 속한 다른 작가의 방식을 빌려 각 창작자가 기존에 해본 적 없는 창작 방식을 시도한다. 둘, 모두가 같은 방식



으로 창작한다. 셋, 여기서 '모두'는 매개자를 포함한다. 넷, 방식은 '키워드 드로잉 쓰기'와 '다른 신체로 드로잉하기'이다. 다섯, 매주 써온 회곡을 역할을 정해 낭독하고, 남은 시간은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채운다. 위의 사항들은 우리가 합의해서 확정한 것이라기보다 재미있는 일들을 하다가 정착한 것에 가까웠다.

우리가 함께한 방식 중 하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해본 적 없는 신체 부위로 드로잉을 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를 사용해보면서, 정교한 작업에 손 대신 발이나 음성 인식 등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작가가 경험해온 사회적 의미의 장애를 창작 과정에 포함하고자 했다. 구체화하는 발이 아닌 손으로, 다른 사람들은 손이 아닌 부분으로 펜을 잡고 그림을 그렸다. 몇 번 서로를 크로키 하면서 이 방법을 테스트해본 작가들은 몸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여 함께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일종의 퍼포먼스로 전환하기로 했다. 커다란 종이를 이어붙이고 그 위를 구르고 기며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누운 채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구체화하는 방식을 따라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에 펜을 끼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팔과 다리가 접히는 부분을 그럴 때는 몸을 땅바닥에 붙여야 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신체는 생각보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 우리는 몇 번의 빼앗겨림과 실패, 경직되고 고통스러운 신체를 경험했다. 이는 구체화하는 시간이 크게 다른 것이었지만, 그의 방식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몸은 창작물을 제약하거나 구성한다. 그러나 그림은 몸이 그려내는 것임과 동시에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구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신체를 이용하는 방식만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었다. 퍼포먼스가 끝나고 그림을 돌아보니 누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모듬이 함께 시도한 방식 중 다른 하나는 키워드를 정해 회곡을 써오는 것이었다. 모임 시간에 한 명씩 단어를 선정하고, 이 단어들이 모두 들어가는 근본을 만들어와

다음 모임에서 낭독을 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주 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양의, 그러나 소소하지만은 않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공동창작이라 하기엔 저자가 분명한 작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개지는 부분이 있는 작품들은 여러 시리즈의 창작물들로 탄생하였다. 이들은 함께한 창작의 결과물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작가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세계관을 파악하며, 공동창작에서 함께 다룰 것들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표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우리가 모임에서 가볍게 나눈 이야기들은 회곡에 섞여 들어가기도 하고, 회곡에서 출발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임의로 정한 단어들이 ‘캐나다’ ‘사과’ ‘머리카락’으로 회곡을 썼을 때, 누군가는 머리카락을 치우는 문제로 싸우다가 캐나다로 떠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과를 하지 않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썼다면, 다른 이는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에 등장한 장애인 화장실을 주제로 한 회곡적이면서도 변칙적인 비판적 날이 서 있는 작품에 키워드들을 집어넣었다. 장애인 화장실이라는 폭지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에 문득문득 등장하다가 창작물의 주제가 된 것이다.

모임 초반, 각자의 경험에 비추어 위험을 정의했던 대화에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입주 작가는 센터 내 장애인 화장실에 관한 당혹스러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동으로 잠기는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던 도중 그만 고장난 문이 열려버렸던 것이다. 이용하는 동안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시간을 약속하는 화장실 시스템의 붕괴는 충격과 민망함을 넘어 불신으로 이어진다.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이 깨져버리는 것이다. 이후 화장실 문에 ‘고장, 문이 닫혀 있으면 열림 버튼을 누르지 마시오’라는 안내가 붙기는 했지만, 작가는 이후 센터의 화장실뿐 아니라 어떤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마침 그 자리의 세 창작자 모두 화장실 문과 관련된 당혹스러운 에피소드가 있었다. 나 역시 장애인

회곡을 함께 낭독하는
신영은, 김진주, 김재아, 김민이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버린 상황에 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고안된 테크놀로지들은 종종 실패하고, 열려버린 화장실 문처럼 우리의 삶에 황망한 구멍을 남긴다.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은 희미하게나마 작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문제의식의 교차로를 드러내주었다. 우리는 장애인 화장실로 대표되는 사회적 장치들에 대하여 생각해왔다. 예기되는 위험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기술들은 매끄러워 보이지만, 사실 필요할 수도 있는 일상 속의 덜거덕거림을 지워버린다. 편리해보이는 단힘 버튼과 널찍한 화장실 공간보다, 단순해서 한 손으로도 문을 잠글 수 있는 걸쇠와 언제든 잠을 수 있게 가까운 문이 더 마음 놓일 수도 있다. 카운터 앞의 긴 줄을 피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고,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사회에서는 모두가 능숙하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상황과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화장실 사용은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 밀접한 행위이자, 사회적으로 인간답다고 대접받는 존엄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가장 직관적이고 신체적인 문제들과, 문명사회에서 이를 처리하려고 동원하는 기계적 시스템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장애인 화장실을 회곡에 등장시킨 작가는 이 시스템이 실패할 때 발생하는 구멍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의 형식과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작품에는 화장실을 연구하기 위해 캐나다로 떠난 연구원들이 한국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붕괴가 일어났다는 심각한 사건을 전한다. 한편 작가들은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지 질문하기 시작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충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 명의 작가들과 매개자가 공동창작의 시간 동안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담긴 다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서로가 가진 세계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동일한 단어들에서 출발하더라도 어떤 작가는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 흐름에 대해, 어떤 작가는 평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를 빌려, 어떤 작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만들었다. 각자가 만든 작품의 차이를 만든 바탕을 가능해보는 일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일과 맞닿아 있었다. 어떤 이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궁금하여 물어보니, 그는 어렸을 때 천문학과를 가고 싶어 별들을 보고 공부했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지금도 별의 이름을 외운다. 식물들의 잎맥을 세밀하게 그려내는 작업에 깔린 밀도 높은 관심과 관찰력은 자연에 대한 얹의 집요한 열망에서 왔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의 현재 삶에 대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모임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다른 이들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혀 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창작자와 매개자 자신의 경험과 비슷하지 않더라도, 호의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느슨한 연대가 사적 영역에서 펼쳐졌다는 것이다. 이는 창작의 기반이 되는 작가 개인의 시간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가족 구성원인 어린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누군가는 장애인콜택시의 엄청난 배차 간격과 불편한 이용 방법 때문에, 누군가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우리는 정시에 모두 함께 만나는 일이 드물었다. 그러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이들은 기꺼이 다른 방식을 찾아보는 일을 거듭하며 우리는 더욱 유연한 공동창작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었다. '위험포럼'을 마주한 이 모두의 방식을 가벼운 산책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직면한 위험을 피하거나 급진적으로 돌파하지 않고, 그 아래 위를 지나는 우회로를 함께,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다.

Warm-up

김준기

‘위험포럼’은 두 개의 벽을 넘는 시도였다. 장애예술이기에 조심해야만 했던 쟁점들을 끌어내야 했고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지원사업의 틀 안에서 과정을 보여주는 시도였다. 이는 포럼에 참여하는 작가들에게도, 포럼을 운영하는 매개자에게도 위험한 시도였다.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두 벽을 넘기 위해 노력했다. 한 달에 두번씩 모둠별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장애예술이기에 회피하는 질문들을 끌어내고자 노력했고, 3회차에 걸친 포럼에서 그 과정을 공유해왔다. 3회차 포럼까지 끝난 지금 과연 우리는 두 개의 벽을 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결과부터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자면 우리는 두 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벽 앞에 서서 저 위를 올려다보고 있다. 애초에 목표했던 두 개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벽을 넘기 위한 시도들에 대해 되돌아본다.

화사한 색깔의 자연으로 가득 찬 송상원 작가의 작업실에서 시작된 첫 모임은 참여 작가와 매개자 모두를 곤란한 상황으로 이끌었다.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면서 신이 나버린 송상원 작가는 자신이 그린 자연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파괴되고 있는 지구와 관련된 수년 전 뉴스 기사들을 줄줄이 읊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를 끝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듯한 곤란한 작가들의 흔들리는 눈빛, 매개자로서 이를 멈추고 대화를 이끌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나의 불안감은 송상원 작가의 작업 속 화려한 색깔처럼 아직도 선명하다.

송상원 작가의 일장 연설을 멈춘 건 서찬석 작가였다. 서찬석 작가는 송상원 작가에게 ‘위험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상원 작가님이 환경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작가님이 사용하는 물감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건 생각해보시지 않았나요?” 송상원 작가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은 뒤 아무런 대답 없이 서찬석 작가의 지난 개인전에 대한 감상평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번 연설에도 다른 작가는 안중에 없었다. 끊임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쏟아냈고, 서찬석 작가의 작업에 대해 ‘으슬으슬한 공포가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자신만의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송상원 작가와 초면인 이현화 작가와 이주현 작가는 송 작가의 작업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송상원 작가는 서찬석 작가의 작업에 대한 평가를 멈추고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꽃에서 시작한 작업 이야기는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상황으로 뻗어 나아갔다. 이번에도 송상원 작가의 독주를 저지한 건 서찬석 작가였다. 서찬석 작가는 그동안 송상원 작가는 장애작가로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작업을 해왔기에 자신의 작업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데 익숙하다는 점을 짚었다. 지금처럼 송상원 작가가 자기 작업을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과 반대로 타인의 작업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해 볼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자는 의미에서 ‘곤란포럼’이라는 모둠 이름을 정했고 작업에 대한 비평을 하는 선생님과 평가받는 작가의 관계를 형성했다. 매번 송상원 작가가 제시하는 주제로 서찬석, 이현화, 이주현 작가가 작업을 해오고 이를 송상원 작가가 비평하는 ‘거꾸로 비평’하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제는 ‘지구 온난화/ 지구 열대화’와 ‘소통의 문제’였다. 송상원 작가는 다른 작가들의 작업에 대해 5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고 한줄 평을 남겼다. 좋은 평가의 근거는 대부분 송상원 작가가 좋아하는 색깔, 이미지, 단어들에 기반했다. 반면 감점의 이유는 지각 제출이나 말대꾸 같은 작업 외부의 요소들에 기반했다. 상당히 1차원적이고 비평 상황에서도 가벼운 웃음만 남는 작업이었다.

단순한 비평 작업을 환기하기 위해 구성원들은 같이 미술관 나들이를 다녀오기도 했다. 이태원역에서 만난 우리는 송상원 작가의 소울 푸드인 케밥을 먹었다. 송상원 작가는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의 케밥을 다 먹은 뒤 자신이 튀르키예 여행에서 먹었던 케밥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의 여행 이야기는 케밥에서 시작해

표 1 '지구 온난화/지구 열대화' 과제 평가

작가	평가내용	평가
이주현	잘 모르겠다. 미완성이다. 완성이 된다면 다시 평가하겠다.	2.5점
이현화	다 좋았지만 후라이에 후라이팬을 추가해 그려라.	3점
서찬석	북극이 녹는 모습이 생생하지 않다. 배경을 추가하라. 이건 여백의 미가 아니다. “아~ 나 죽는다”가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불쌍한 북극곰을 더 불쌍하게 표현해야 한다.	4점

표 2 '소통의 문제' 과제 평가

작가	평가내용	평가
이주현	작업을 안 했다.	0점
이현화	자수를 공들여 잘했다. 빨간색에 대한 의미도 좋다. 미완성이라서 감점 1점	4점
서찬석	점이 선이 되고 선들이 꼬이는 느낌이 좋았다. 말대꾸해서 감점 0.5점	3.5점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확장되었다. 송상원 작가의 튀르키예 여행기는 미술관에 도착해서야 끝이 났다. 우리는 리움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김범 작가의 '바위가 되는 법' 전시를 함께 관람했다. 관람하는 동안 송상원 작가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카메라에 담았다. 송상원 작가는 김범 작가의 <노란 비명>과 <생명을 잃은 사물들>에 큰 감명을 받은 듯했다. 전시 관람 이후 진행된 모든 곤란포럼 모임에서 <노란 비명>과 <생명을 잃은 사물들>에 대한

미술관 전시 관람 후
이야기 나누는 '곤란포럼'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고 결국 포럼의 마지막 날인 3차 포럼에서도 언급되었다. 두 달 남짓한 시간 동안 '거꾸로 비평하기'를 진행해왔지만 반복되는 단순한 평가에 참여 작가모두가 한계를 느꼈다. 외부 전시 관람을 통해 새로운 비평의 장을 도모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2차 포럼 이후 우리는 비평 작업을 내려놓고 작가의 개별적 작업관에 대한 원초적인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기로 했다.

작가란? 예술이란? 작업이란? 우리는 이와 같은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곤란포럼 모듬 구성원 중 이현화 작가와 이주현 작가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작가였다. 자신의 결과물에 대한 기준이 높았기에 작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기에 2주에 하나의 작업을 해야만 하는 '거꾸로 비평하기' 작업은 두 작가에게 부담이 되는 과정이었다. 사실 작업을 공유하기로 한 마감 날짜를 넘기거나 미완성의 작업을 공유해서 매번 송상원 작가에게 감점을 당하던 두 작가였다. 매개자로서 두 작가의 참여도가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작가로서 그들이 가진 성향을 알고 나서 오히려 그들의 고충이 이해됐다. 예술가로서 느끼는 고충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삶에서 겪는 고민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각자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서찬석, 이주현, 이현화 작가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함에 대해 이야기하며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던 찰나, 이때까지 별말 없이 앉아있던 송상원 작가가 “외로우면 친구가 필요해요”라고 말하며 대화에 참여했다. 송상원 작가는 자신에게 친구가 필요하지만 자신의 장애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외로움에 대한 인식과 친구의 필요성은 장애라는 조건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였다. 곤란포럼은 구성원 모두가 느끼는 외로움에서 시작하여 '친구 만들기'라는 주제로 하나가 되었다. 친구를 만드는 방법을 작업으로 표현해보자는 의견을 모았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함께 고민해볼 예정이다.

장황하게 4개월간의 곤란포럼의 모습을 정리해보았다. 공동창작을 위해 모인 네 명의 작가가 공동의 주제를 찾기까지 4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곤란포럼은 서로에 대한 이해 과정 없이 '위협포럼'의 목적을 위해 처음부터 무언가를 찾으려 했던 것 같다. 위협한 지점을 건드려야 한다는 의식과 특별한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에 선행해야 하는 작업이 서로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선 3개월의 시간이 헛되다는 것은 아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드러낼 수 있었다.

공동창작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단순히 여러 장르와 여러 작가를 매개하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 속에서 작업보다는 작가, 작가보다는 사람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서로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난 과정을 돌이켜보니 어쩌면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참여자는 송상원 작가가 유일했다. 지속해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서 자신이 좋았던 순간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다. 다만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어떻게든 위협한 주제를 드러낼지 고민한 비장애 작가와 매개자인 나의 노력은 오히려 평등한 의미에서의 공동창작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송상원 작가가 발달장애를 가진 작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거꾸로 비평하기'라는 작업을 시도했을까? 서로에 대한 자기소개에서 시작하여 작업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동의 주제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위협포럼'이 넘고자 했던 두 개의 벽을 살펴보자. 우리는 장애예술이 회피하는 지점들을 드러내고자 했고 공동창작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장애예술에 대한 위협한 질문을 위해 노력했지만 '친구 만들기'라는 지극히 평범한 주제를 가져왔다.

우리는 '거꾸로 비평하기'라는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했지만 특별한 걸 보여주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는 두 개의 벽 앞에서 있다. 하지만 시작점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애초에 우리는 벽 앞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벽이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서 출발했으며 4개월 동안 돌고 돌아 벽 앞에 마주 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벽을 넘기 위해 '친구 만들기'의 과정에서 참여작가들이 각자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친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가 앞서 말한 벽을 넘기 위해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위협포럼'은 곤란포럼 모두가 공동창작을 통해 넘어야 할 벽까지 오게 하는 과정이 되었음은 확실해보인다.

부대낌을 감내하고 만나는 세계

지가영

준비부터 어느새 마지막 3차 포럼까지 지난 4개월의 여정 동안 ‘위험포럼’의 매개자로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은 ‘불분명함’이었다. 흘러가는 과정상의 불분명함뿐 아니라 내게 요구된 역할과 원칙이 어떤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고 참여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처음 ‘위험포럼’에 참여를 제안받았을 당시, 나는 이 기획의 모호함과 불분명함이 이끌렸고 또 기대하게 되었다. 여러 지원사업을 겪으며 각종 서류와 형식적인 절차들에 신물 나 하던 찰나, 총괄 기획자로부터 ‘위험포럼’의 취지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다.

‘위험포럼’의 첫날, 기획자가 소개한 ‘공동창작’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서로 질문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그 의미를 둡니다. 창작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 인상적인 단상을 자유롭게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내가 이해한 ‘위험포럼’의 취지는 이게 뭔지 모르는 채로, 혹은 언젠가 그 이후 단계에서나 알게 된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어쩌면 알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에서가 아니라 창작자들이 모인 곳에서 기대한 유일한 것이라면, 만일 그 안에서의 예술적 감각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게 뭔지 모르는 채로’ 해내는 것. 또는 ‘그 이후 단계’를 본능적으로 지각하는 감각에 가까운 것이었다. 특히 예술가 개인이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과정에서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과정 말이다. 사실, ‘위험포럼’은 완벽한 기획이 아닌, 불완전한 기획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불완전함이 정책사업 내에서 유연한 시도가 가능하다는, 제도 속의 여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해석한다. 이 여백이 일정 부분 허락하고 제공하는 예술가의 자율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한 달에 최소 몇 번이나 만나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일지가 한 달에 몇 개라고요?”와 같은 질문을 던졌고, 나 역시 ‘그게 중요한 걸까요?’라고 되묻지 못하고 기획자에게 확인하러 가는 씩씩한 순간도 있었다. 사실 내가 기대한 것은 사업설명회에서나 제시할 법한 지침이나

원칙 따위는 온데간데없이, ‘위험포럼’의 제안을 귀찮아하거나 지루해하고 기획자의 철학과 취지를 이해하고 실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위험포럼’의 유연함을 철저하게 이용하기를, 그리고 매개자로서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싶었다.

그러나 예술가들은 이 제도 속의 틈새에서 신명 나게 놀거나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기획자나 매개자의 절대적인 존재를 원하기도 했다. 제도가 허락하는 가변성이 창작자들에게는 또 다른 막막함과 피로였던 것이다. 한 창작자는 오히려 제한이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 제한은 억압이 아니라 조력이라고, 오히려 ‘위험포럼’의 자유나 자율성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어느새 요구하기보다는 요구받는 것이 익숙해졌으며,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방향과 규칙만을 찾는 데 급급한 것이다.

한편, ‘위험포럼’에서 매개자를 맡기로 하면서 스스로 설정한 제1의 원칙은 제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위험포럼’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시된 매개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원하기, 관찰하기, 정리하기, 일정 관리, 원활하게, 즉, 온화한 매개자나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몇몇 창작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확한 지침이나, 심지어는 결과물을 요구받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며, ‘과정 중심의 공동창작 프로젝트’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위험포럼’이 제시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안 해본 방법을 선택하기
- 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보기
- 대답하기 어려우면 중얼거리기
- 숨겨둔 것 꺼내기
- 더 낫설고, 더 불안한 것 즐기기
- 작업에 대해 비판적 태도 유지하기

유연함을 비롯한 이 ‘위험포럼’의 원칙들은 누군가에게는 버거운 일이었다. 한 창작자는 “자유’가 뭔지 모르는데 자유롭게 하라니 괴롭다”라고 털어놓기도 했고, ‘위험포럼’이 형성한 ‘솔직할 수 있는 가상의 구역’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일부 창작자들은 ‘위험포럼’의 원칙이 ‘무례’하고 위협하다고 느끼면서, “무례하지 않은 솔직함”을 강조하거나, “기본예절이 단단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기도 했다. 한 창작자는 나에게 이 ‘위험포럼’의 원칙이 자신과 맞지 않아 피곤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는 ‘예의’는 생각보다 완강하고 튼튼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위험포럼’의 원칙은 정말 무례한 것인가? 예의 바르지 않은데도, 혹은 예의 바르지 않아야만 깊은 곳에 닿을 수 있다는 착각과 선입견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다. 자신의 예민한 구석을 건드리는 이야기는 솔직함을 가장한 무례함이라 평하고,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방식의 대화는 회피하곤 했다. 사실, 이 ‘위험포럼’에 동행하는 창작자들은 참여함으로써 ‘위험포럼’의 원칙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때, 흥미로운 것은 각 모둠이 모일 때마다 작성한 일지의 역할이다.

이 일지는 기획자나 매개자,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포럼의 과정을 확인하고, 정책 사업 특성상 필요한 아카이브를 목적으로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창작자들은 이 일지 안에서 “사실은……”이라고 운을 떼며 서로의 상호작용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한 숨겨둔 속내를 고백했다. 면대면 상호작용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위험포럼’의 원칙이 일지라는 글쓰기 행위에서는 지켜지고 또 시도되었다. 무례해도 괜찮은, 솔직한 의견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비평하며, 궁극증을 쏟아내고 오토크리틱을 하기도 했다. 일지야말로 진짜 위협함을 시도하고,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가 된 것이다. 한 창작자는 “일지라는 문서 안에서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느낀다. 요즘의 나에게 필요했던 하나의 과정임을 고백하고 싶다”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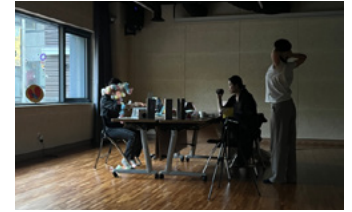
일지에는 털어둔 속내를 감추고, 여전히 만나서 말하기를 주저하지만, 그럼에도 창작자들은 모였다. 파주로, 대학로로, 연희로, 신당으로 그들의 몸은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만나 창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로서 살아가는 일, 각자가 안고 있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다. 이 과정에서 나눈 대화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현실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된다. 생계에 관한 고민, 작업과 평판, 삶의 무게와 과업들로부터 탈피해 현실의 삶 속에서 먹고 살아야 하는 무게에 짓눌려 있는 창작자들에게 이러한 만남, 사교의 자리는 잠시나마 현실의 짐을 벗어 던지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게 했다. 또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나눠 타고, 함께 산책하거나 전시를 보러 가기도 하고, 각자의 면면을 마주하면서 서로를 예술가보다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게 됐다.

하지만, 갈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작가들은 여전히 공통의 영역을 찾기 위해 분투했고, 여전히 불편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감정적인 피로의 연속”을 겪었다. 크고 작은 갈등도 쌓여갔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매개자로서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방임해서는 나아가지 못하니 적절히(?) 간섭해야 했다. 결국 나는 각자 다루는 재료도 다르고, 한 자리에 모이기도 어려운, 관심사나 생각도 다른 이들에게 책상에 앉아 글을 써보는 시간을 제안했다. 글쓰기의 형식이 끌어내는 말하기는 일지를 통해 창작자들의 솔직함을 엿본 매개자가 궁리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창작자들에게 제안한 ‘릴레이 글쓰기’라는 형식은 일지를 통해 창작자들의 솔직함을 엿본 매개자가 궁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제안을 할 때 나는 창작자들을 신뢰하기로 했다. 자리를 마련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보여줄 이야기는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각자 한 시간 반씩, 네 명의 작가가 연속해서 릴레이로 글을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글이 쓰일지는 예측 불가능했다. 창작자의 자기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에 달린 일이었다. 그러나 책상 앞에 앉아 이어 달리는 이 과정이 분명히 조성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상태가 있었고, 은연중에 던지시 드리우는 것들이 있었다. 이 릴레이에서 창작자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재료가 되는 카메라, 모빌, 보풀 등을 가져와 책상 위에 늘어놓았다. 서로가 던져놓은 장치와 단서들을 눈앞에 두고 자리를 잡고 앉아 창작자들은 단어와 문장들을 쓰기 시작했다. 앞서 쓴 사람의 글에 답하기도, 앞선 이야기와는 관련이 있는 듯 없는 듯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내기도 했다. 누군가는 어렵사리 장애를 마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글이 아니라 쓰고 싶은 글의 목차만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 몸부림치기도 했다. 또, 어떤 이는 눈물을 보여 곁에서 말없이 안아주기도 했다. 말을 걸기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면서 창작자들은 시트 속 글이 지워지고, 고쳐지고 다시 적히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응시하게 됐다. 화자와 청자가 서로 엇치락뒤치락하는 대화의 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얼굴을 맞대고는 하지 못했을 종류의 이야기들이 이 릴레이 글쓰기를 통해 달았는데,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야 대면하게 된 생각과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 창작자는 너무 솔직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지워버리고 싶다며 후회했고, 또 다른 이는 자신이 어렵사리 털어놓은 이야기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해 속상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쏟아져나온 감정과 생각들은 무척 강렬한 것이어서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다. 창작자들은 “너무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서 스스로 다시 읽는 게 힘들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지만, 어쩌면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언어화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했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릴레이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한국과 프랑스, 이른 아침과 늦은 밤, 각자의 장소와 시간에서, 시차를 두고 쌓여가고 있다. 수동성과 능동성, 의지와 의무가 서로를 요청하면서.

‘위험포럼’의 초기에 나는 매개자로서 창작자들의 불만과 질문,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다. 동의와 합의를 끌어내고, 공동의 것을 찾아주려 하고, 심지어는 제안하고, 만들어주려 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앞으로 예술가들이 보여줄 완성된 작품보다 현시점에서 아카이브를 목적으로 쌓인 작가들의 불평과 불만, 자기 고백이 가득 담긴 중얼거림, 끄적임에 끌린다. 이러한 작업이야말로 ‘위험포럼’의 원칙을 가장 잘 이해한 결과물이며, 불완전하고, 고민하고, 씨름한 흔적들이야말로 오히려 예술 창작 과정의 자원이 아닌가? 만일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고, 충분한 공감대와 합의를 이루었다면 효율적이고 원활했겠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부유했다. 나와 타인에 관해 탐구하고, 개인의 서사나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이나 나누게 됐다. 그리고, 결국 이 대화의 끝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 나아간다. 주로 혼자서 작업해왔던 이는 자신이 한번도 누군가와 마음 맞춰 함께 해본 경험이 없었음을 깨닫고, 적지 않은 공동창작 경험을 가진 이는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지 않다. 다 다를 뿐. 그 다름에 대해 중립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인다. 아무리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오해일 것이다. 하지만 절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더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동창작에서의 실패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 실패가 갈등과 상처를 담고 있다고 해도, 이것 역시 과정 안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창작자들이 이렇게 모여 서로의 작업을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 이러한 만남과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창작자의 예술론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모든 창작자가 각자의 질문과 고민을 자기 작업 안에 품고 있을 때, 이는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더 큰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답을 찾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을 만나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망의 설정이 중요하다. 모여서 대화하고 놀면서, 동시에 각자의 작업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떠올리게 되는 것들, 이런 대화가 바로 공동창작이다.

‘위험포럼’에서의 공동창작에는 여전히 공동도, 창작도 없다. 그런데도 이 부침과 부대낌 덕분에 비로소 ‘위험포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의견이 더 좋고 나쁘냐, 누구의 말이 옳냐는 것을 판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참조하고, 대조하고, 뒤섞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동의와 합의의 과정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창작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공동창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획자와 매개자에게 다시금 묻는다. 도대체 공동창작이 무엇이냐고.

요컨대 공동창작의 과정은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 나누지만, 처음 만나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는 일이며, 이미 지나간 길인데도 아까 그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길. 때로는 아예 갈 길을 잃어버리는 길. 그리고 또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길이다. 이 부대낌을 감내하고 만나는 세계가 중요하다. 이 기획은 예술가 개인들이 모여 삶과 사회에 관한 이야기들의 아카이브를 만들어낸 듯하다. ‘위험포럼’은

비판과 낯두리, 뒷담화와 반성 사이에서 안전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이며, 동료와 친구 그 어딘가에서 결국 타인과 함께 살고 대화하는 방식 중 하나다. 최근 이러한 자리와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나? 이 예술가들의 부대낌, 만남과 대화가 담긴 기록을 만남으로, 글로, 따라가 보는 일은 매개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러한 자리가 꼭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곳곳에서 ‘위험포럼’이 더 많이 생겨나길, 더 많이 부대끼고, 투덜거림이 쌓이기를.

장벽 통과하기

차지량

위험포럼

나는 2023년 8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문화매개실천연구소가 주관하는 ‘위험포럼’에 참여했다. 위험포럼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창작센터의 여러 장르의 작가들이 장애예술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창작을 떠올리는 워크숍이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 5개의 팀이 구성되었고, 내가 속한 팀의 구성원은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의 박유석 작가,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안은선 작가, 서울무용센터의 하지혜 안무가였다. 나는 이 팀에 제안과 진행을 불리일시키는 역할로 속해있었다.

첫 번째 모임에서 팀원들과 만나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달랐고, 각자 작업의 규칙이 있었고, 자신의 작업을 쌓아온 시간과 장소를 포함하는 경로가 있었다. 때로는 그것을 이력처럼 사용하지만, 예술가 자신에게 그 기억을 꺼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다르게 작동할 것이다. 사용하는 시공간과 재료, 불리는 장르가 다르기에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엮이는 지점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루미큐브를 예를 들어 나의 성향을 털어놓았다. “1)루미큐브해보신 적 있나요? 거기서 가끔 모든 큐브를 섞어 조합해서 한 번에 자신의 모든 큐브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저예요.”

규칙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저런 조합을 상상하는 것을 즐기는 나에게 위험포럼의 ‘위험’이라는 말이 그런 방식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했다. 위험은 늘 하던 것과 안전함에서 먼 방향을 향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1)규칙성에 의한 타일조각의 조합을 맞추며 자신이 가진 조각을 내려놓는 보드게임.

잊어버리고 모두를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이 모임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모든 경로를 느끼고 내려놓는 자신만의 시도가 결국 그것이 어지럽혀져 있는 자신 앞에 펼쳐진 모든 규칙과 풍경,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 게임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 실패하면 어떡하죠?”, “그 시도는 실패하는 거죠. 하하.”

시도

한 인간으로서 각자의 삶에서 예술을 발생시킨 경로를 확인하며 공유하게 되는 것은 예술에 관한 것만이 아닐 것이다. 그런 경로는 하나의 지도로 포개어지지 않지만, 교차점과 방향, 성향을 드러낸다.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각자의 경로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었던 것’과 ‘막히거나 힘들게 했던 것’을 마주하는 시도를 했다.

움직임으로 리듬감을 만드는 것과 칼군무를 좋아한다고 말하던 지혜 안무가는 오랫동안 한 댄스컴퍼니에서 무용수로 일했고, 현재는 독립하여 자신만의 작업을 쌓아가고 있는 시기였다. 때로는 요가 강사, 다른 공연의 출연하는 무용수, 자신의 안무를 창작하는 시간을 골고루 소화하고 있었다. 일정을 고려해서 몸과 마음의 정확한 분리와 집중으로 각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수행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강한 책임감의 몸짓에 긴장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무대 혹은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순발력을 발휘하여 언제든 제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실을 촘촘히 꿰매 작품을 만드는 은선 작가는 육아와 작업, 그리고 일을 골고루 시간을 분배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각각 자신이 그것에서 최소한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최대로 쏟을 수 있는 시간 단위를 경험으로 인식하고, 오랫동안 희생과 노력으로 나름의 안정을 찾은 것 같이 보였다. 시간을 더 들이면 모든 것엔 그만큼

부피감이 생겨났다. 작업의 양도 채워지고, 가족들과 채워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부피감은 결국 자신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태양을 바라보며 오른쪽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시각장애가 생긴 유석은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보하며 생기는 공백을 두는 버릇 같은 것이 있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것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고요하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는 자신의 감각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모든 창작이 드러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듯, 어쩌면 서울장애예술센터의 1년 스케줄에서 다소 장애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시되는 것들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장애 예술가에게 할 수 있는 제안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팀 이름이 정해졌다. 지혜 안무가는 강렬한 것을 원했고, ‘썬더볼트’라는 이름을 제안했다. 우리는 그 강렬함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공동창작

썬더볼트. 공기 중 물질들의 반응이 모여 번개를 이루듯, 참여하는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흐르며 생동의 리듬을 만들어 가는 가운데, 특정 순간에 합일점이 발생하여 스파크가 일어날 만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예술가들이 모이면 그런 순간이 종종 발생하지만, 그것이 매번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 스파크가 가능한 조건과 요소는 무엇일까?

각각의 다른 성질은 섞일 수 있는가? 원래의 상태가 무엇인 줄 알고 섞었을 때, 예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끌려갈 수 있을까? 거기서 생기는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 밖에 있는 영역은 무엇일까? 우리가 최근까지 휩쓸리지 않고 버텼던 것과 매번 휩쓸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돈은 얼마만큼 필요한가? 신되는 언제 쌓이는가?

두리번거리며 이야기는 쌓여갔다.

장르 간 협업에서 각 예술가의 기술을 조합하는 것, 혹은 전문스테프로 나열되어 기능하는 것과 그들의 내적 예술발생 경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장을 펼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려면 얼마만큼의 다른 에너지를 끌고 와야 하는가? 그 차이는 작품의 결과를 달라질 수 있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레이스로 펼쳐져 있을 때, 고집해야 하는 것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나와 다른 존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모이는 시간, 만족감은 효율과 적절함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일까?

목표와 결과가 없는 것도 위험한 일일까? 공동의 적이 생기면 투지가 생겨서 좋은 것일까? 예술의 의지가 없어질 만큼 평화로운 상태라면? 상징적인 공간을 점유하여 나와는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를 전시하는 것에 이유가 필요한 것일까? 그 모든 과정이 이력으로 남는 것이 중요한 사람과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이 과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 비명을 지른다. 하루 만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없기에. 잔상으로, 불꽃으로, 어딘가 주머니에 간직하고 마는 것이다. 비록 그것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릴지라도.

9월 22일 이뤄진 2차 위험포럼에서 썬더볼트 멤버들은 각자 “나의 작업이 온전한 작업이 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글을 작성했고, 그 글을 녹음한 각자의 목소리를 포럼에서 모두가 눈을 감고 가만히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주한 장벽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지나쳤는지, 물어보거나, 부수거나, 모른척하거나, 넘어갔는지, 결국 그것들을 지나 나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과 도달하고자 하는 곳을 편안한 상태에서 목소리로 녹음한 것을 공유했다. 거기엔 새로움에 대한 갈망도, 인정욕구의 방향도, 길 잃은 즐거움도, 동료의 편袒도, 새로운 꿈도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모임이 공동 창작의 결과물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 아닌 이 모임 자체의 경험이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에게 ‘썬더볼트’는 현상이 아닌 자신에게 먼저 일어나는 스파크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방

작품이 발생하는 최소 단위 혹은 최초의 조건은 무엇일까? 은선 작가는 ‘실’을 떠올렸고, 유석 작가는 ‘빛’을 떠올렸다. 지혜 안무가는 ‘몸’을 떠올렸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떠올려 보자고 제안하여 ‘마음’을 포착했다. 춤을 추는 사람이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몸이 움직일 때 마음의 소리를 꺼내어 보면 어떤 것이 들리게 될까? 자신이 발생시킨 최초의 빛과 실, 그리고 마음은 세상이 만든 장벽, 내가 만든 장벽들을 통과하여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 그리고 그 도착지는 내가 정말 원하는 종착지가 될 수 있을까?

최근 나는 자신의 껍질을 계속해서 깎아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얼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중에 하나는 ‘내가 예술가가 아니게 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이것이 예술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근원에 가까운 두려움이라고 생각된다. 장벽이 곧 내가 인식하고 있는 껍질임을 느끼게 될 때, 나는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예술가 혹은 나를 지칭하는 것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니 장벽이라는 개념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의 여정에서 해방은 내 허물이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끝까지 들여다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었을까?

11월 24일 마지막 위험포럼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과하며 느꼈던 해방을 짧게나마 공유할 수 있었다. 무대에서 세운 계획이 무색해질, 시각예술가의

시각 체계를 무화할, 그 모든 시간의 축적에 내가 있음을 믿는 손길과 조용한 실천들로 해방의 이야기가 오갔다. 그리고 그곳엔 시각예술가, 장애인, 무용수라 표기된 카테고리 껍질을 벗은 그저 이름이 쓰여 있었다.

좀비와 병신

최황

“나 병신 같아?”

몇 해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신체의 오른편이 마비된 라움콘의 Q레이터가 송지은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한다. 그는 자기 모습이 반사된 거울을 보면서 병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스스로에게 붙였다. 이 글은 병신이라는 단어로 시작해 병신으로 끝맺을 예정이다.

미친 듯한 더위였다. 벌써 서른 몇 번째나 맞이해 본 여름이었으나 8월 4일 그날은 정말 위협할 정도로 더웠다. 그런 날씨가 절정에 이르렀던 낮 두 시, ‘위험포럼’에 참여해 라움콘을 처음 만났을 때,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비틀대며 걸어온 Q레이터는 자신이 기획했다가 면접 심사에서 미끄러진 경험을 모두 구성원들에게 들려줬다.

어느 날 좀비 영화를 보던 Q레이터는 느릿느릿 비틀대며 걷는 좀비들을 보다가 그것이 배우의 연기임을 새삼 떠올렸는데, 본인이 좀비 분장을 하고 걸으면 연기를 넘어선 퍼포먼스가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어차피 자신은 몸의 한쪽은 움직이지 못하는 데다가 성인의 걸음 속도라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걷기 때문에 자신의 걸음 방식이 정확히 좀비의 움직임과 포개진다는 거다. 라움콘은 Q레이터의 편마비 병실 동기(정확히 그는 병실 동기라고 표현했다) 네 명과 함께 좀비 걸음 퍼포먼스를 기획해 모 지역 거리예술제에 지원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라움콘은 면접 심사에 들어갔다. 심사위원 한 명이 라움콘에게 질문했다.

“다른 장애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움콘의 이 기획은 거리예술제 공모에서 탈락했다. 이 이야기를 하며 라움콘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앞에 두고 당사자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 섞인

질문을 한 상황 자체가 재미있었다며 웃었다. 그렇다. 듣고 보니 우습다. 장애인 본인이 본인의 신체적 특성을 이용한 작품을 만든다는데 대체 누가 불편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서 웃었다. 첫 만남에서 나는 궁금한 게 많았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 비장애인으로 살아온 Q레이터나 그의 파트너 송지은에게 사실 장애는 아직 적응 중인 무엇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다. 우리는 서로를 소개하며 아이스 브레이킹 격의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여기서 대뜸 라움콘은 본인의 장애를 대상화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장애를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또 무엇이든지 해보자며 모두의 방향성을 완전히 활짝 열어젖혔다.

장애가 있는 작가와 장애가 없는 작가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가장 커다란 방해 요소는 역시나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에서 발생할 것이다. 차이가 작든 크든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고, 이는 과정과 결과의 한계를 극대화한다. 대상화를 피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언어들 배제하고 안전하고 무난한 것들을 떠올리게 만든다. 하지만 라움콘은 스스로 비장애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며 그 차이를 고스란히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과감한 입장부터 던져 놓았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주 명확해졌다. 그가 기획했다가 실현하지 못한 그 프로젝트 말이다. 그렇게 우리는 ‘좀비 되기’를 구현하기로 했다. 여기서 우리는 좀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그러기 위해 아주 간략하게나마 좀비의 역사를 짚고 넘어가야 했다. 구글 검색창에 좀비를 적고 엔터를 눌렀다.

좀비는 아이티의 부두술사 전설에서 유래했다. 부두술사가 주술과 인형을 이용해 죽은 자를 되살리고 조종한다는 전설이 서양에 닿아 시간이 흐르며 좀비로 각색됐다. 좀비 영화의 고전이자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조지 A. 로메로 감독의

1968년 작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부터 2022년에 종영한 미드 <워킹 데드>에 이르는 좀비물의 계보에서 매우 중요하게 드러나는 좀비의 특징은 바로 느리다는 것이다. 좀비는 이미 한번 죽은 신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면서도 부패가 진행된다. 썩어가는 신체는 둔할 수밖에 없다. 문드러진 살갓과 냄새나는 근육의 걸음걸이는 느릿느릿하고 비틀댄다. 때문에 좀비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대니 보일의 <28일 후> 이후로 급격하게 등장한 뛰는 좀비는 좀비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좀비는 좀비다워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썩어가는 근육, 부러진 뼈로는 뛸 수 없기 때문이다.

21세기 이후 제작된 좀비 장르 작품에서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장치는 바로 바이러스다.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가 사람을 좀비로 만들고, 좀비에게 물리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산 사람도 좀비가 된다는 플롯은 어느덧 이 장르의 문법이 됐다. 좀비물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좀비를 피해야 한다. 어쩌다 좀비에게 살짜기라도 물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좀비에게 물린 사실을 숨기곤 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좀비를 격리하거나 좀비로부터 떨어지려 한다. 좀비는 퇴치의 대상이며 재앙 그 자체다. 주인공은 안전지대를 향해 이동한다. 안전지대는 좀비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곳이며 그곳은 정상성의 유토피아다. 그런 면에서 영화나 드라마가 그려내는 좀비는 장애와 상당히 닮아있다. 이 사회는 장애를 숨기고, 장애를 피하고, 장애를 격리한다. 장애는 느리고 장애는 불편하며 장애는 극복해야 하고 장애는 되도록 없는 편이 낫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거라고는 좀비라는 소재를 쓰자는 아이디어뿐이었다. 이 아이디어로부터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어쩌면 우리의 친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3차 미팅은 성북동의 막걸릿집에서 진행했다. 진정 예술의 절반은 술인 것일까? 술이 들어가니 막혔던 것들이 튀어나와 모이기 시작했다. 현대미술 작가

라울콘, 현대무용 안무가 주희, 시인 김해솔 그리고 역시 시각예술을 하는 내가 한 모듬이 되어 좀비를 소재로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부터 우리가 목표로 삼은 우리의 장르는 영화였다. 물론 영화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다. 거창해질 제작비도 없지만 이날의 취중 회의 이후로 우리는 공동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들을 구체화해나갔다.

회차를 거듭해 좀비와 장애를 연결하면서 우리는 '좀비 되기'가 생각보다 훨씬 두터운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고, 좀비라는 장르를 이용해 장애를 대하는 사회의 방식을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와 사회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그 무엇보다 훌륭한 소재였다. 그러나 한쪽이 완전히 마비된 장애 당사자의 몸을 이용해 좀비 연기를 시킨다는 콘셉트를 두고 누군가는 앞서 등장한 심사위원에 동기화돼 불편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 불편함 탓에 이죽거리는 마음 한구석을 억누르고 있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줄 알고 움베르토 에코의 칼럼집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에서 정치적 올바름—책에서는 정치적으로 '반듯한'이라고 번역했다—을, 특히 이 세상에 팽배해진 미국식 정치적 올바름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들을 잡아당겨 본다. 그는 차이의 존중을 사회의 근간으로 삼기로 결정한 문명에서 희극이 종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고대로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이어온 아주 오래된 희극의 역사는 앓은뱅이, 절름발이, 말더듬이, 난쟁이, 똥보, 백치, 일탈자, 평판이 나쁜 직업, 열등 민족으로 간주되는 이들에게 의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금기가 됐다. 이제는 결코 그들을 희화화하거나 따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종말을 맞이한다.

그 결과 희극의 실행 여부가 계급을 나누는 새로운 장벽으로 작동한다. 이전에는 노동자를 비웃는 것으로부터 스스로가 자본주의의 상위 계급임을 드러낼 수

있었으나 이제 노동자만 자본주의자들을 조롱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재용을 재드래곤이라 부르고 정용진을 마이너스의 손을 가진 고릴라라 부른다 한들 언제나 강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저 놀림을 받는 이들—정용진은 심지어 고릴라를 이용한 브랜드를 만들었지 아마—이다. 게다가 이제는 정치적 올바름이 하나의 시대정신이자 예술 해석의 기준이 되었다고 생각해 전래동화의 내용을 비판하거나 바꾸려는 이들이 등장했다. 이런 사람들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용납할 수 없다. 난쟁이는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제목을 ‘백설공주와 일곱 명의 비표준적인 신장의 성인’으로 바꿔야 한다.

라움콘이 첫 만남에서 본인의 장애를 대상화해도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모듬 프로젝트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불필요할뿐더러 심지어는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리는 ‘위험포럼’에 부합하는 태도를 견지하기로 했고, 위험한 태도로 접근하자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이 합의가 대단한 태도의 변화를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일부러 도모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겠다는 합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네오나치를 표방하거나 KKK단의 장점이나 일베의 순기능에 관해 논하게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부터 배운 앵무새처럼 다른 곳에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로 시간을 채웠다는 뜻도 아니다. 돌이켜보면 이 합의는 그저 우리의 프로젝트에 딱 맞는 제목을 짓는 데에 쓰였을 뿐이다. 제목에 고작 ‘병신’이란 말을 넣는 일을 했을 뿐이다.

공교롭게도 대학로의 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키오프 미팅이 진행되던 그 뜨거웠던 여름 한복판의 날에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시위가 한창이었다. 또한 공교롭게 그 지극없게도 대학로에 가기 위해 버스에 탔던 나는 서울시의 한 홍보 영상을 보며 이죽거리고 있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이용해 휠체어 장애인들이 웹페이지에 접속해 저상버스 사전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제도를 홍보하고 있었다. 비장애인들 중 누구도 시내버스를 예약해서 이용하지 않는데, 장애인을 위해 저상버스 사전예약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이걸 제도랍시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은 ‘우리’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야만적인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여론은 싸늘하고 장애인은 연행된다. ‘우리’에게 장애인의 권리라는 건 장애인이 집 밖에 나오지 않았을 때나 겨우 옹호해줄 만한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 투쟁은 병신들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병신이라는 말을 의젓하고 우아하며 누구에게도 불편하지 않은 말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백설공주와 일곱 명의 비표준적인 신장의 성인’처럼 말이다.

우리는 병신이라는 낱말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병신이라는 낱말을 대체할 다른 낱말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가장 잘 어울렸기 때문에 굳이 대체할 이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제목을 붙인 후 우리는 굉장한 만족감을 느꼈다. 특히나 라움콘의 두 멤버는 이보다 적합한 제목을 붙일 수는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마도 나를 비롯해 안무가 주희와 시인 김해솔에게는 모종의 자신감과 해방감이 자리 잡았을지도 모른다. ‘그래, 뭐, 이게 어때서?’라는 식으로.

어느덧 구월이 되고 시월이 됐다. 이즈음 내린 비에 여름의 더위는 마모됐다. ‘위험포럼’이 마무리되는 십일월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이 포럼이 마무리될 때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보여줘야 할지 정해야 했다.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실제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비를 확보한 포럼이 아니라는 거였다. 단 5분짜리 초단편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만들 수야 있겠지만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보여주기로 한 것은 ‘좀비 되기’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각자의 장르에서 주로 다루는 매체의 사용법을 공유하는 거다. 안무가 주희는 본인의 매체인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했고, 라움콘은 자신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 좀비처럼 움직이는 방법을 전수했고, 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법을 나누었고, 김해술은 좀비를 이용한 시 작법을 과제로 던져줬다. 이 워크숍을 통해 ‘좀비 되기’라는 공동 작업의 진개를 위한 실질적 기술들이 서로에게 전수됐나 하면, 좀처럼 엿볼 기회가 없는 서로의 매체를 다뤄봤다는 경험은 다시 각자의 작업에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힐 테다. 이런 워크숍으로 알차게 채운 ‘위험포럼’ 이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 작업을 상상할 수 있도록 시놉시스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2024년, 한 장애인 시설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장애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만든 이 시설에서 발생한 좀비 바이러스는 과연 바깥으로 퍼질 수 있을 것인가?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나가야 한다!

혹은 그 반대로.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사람을 걸어다니는 시체로 만든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찾아나선 사람들. 그들이 찾아낸 곳은 다름 아닌 장애인 시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좀비처럼 걸어오는 누군가와 마주치는데…….

이러나저러나 장애인 시설의 격리를 중심으로 장애와 사회 일반과의 역학 관계를 비평적으로, 자조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살아있는 병신들의 밤> 되시겠다.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예술인 레지던시로 시각예술 작업실 운영을 중심으로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한 창작 활동과 발표를 지원합니다. 지난 16년간 200여 명의 예술가를 지원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는 장애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발행인. 이창기
발행일. 2023. 12.
기획/편집. 문화매개실천연구소
디자인. 그리즈
인쇄. 성원애드피아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2길 31

전화. 02-423-6674
이메일. songpa@sfac.or.kr
홈페이지. www.sfac.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jamsilartspace
인스타그램. [seoulartspace_jamsil](https://www.instagram.com/seoulartspace_jamsil)